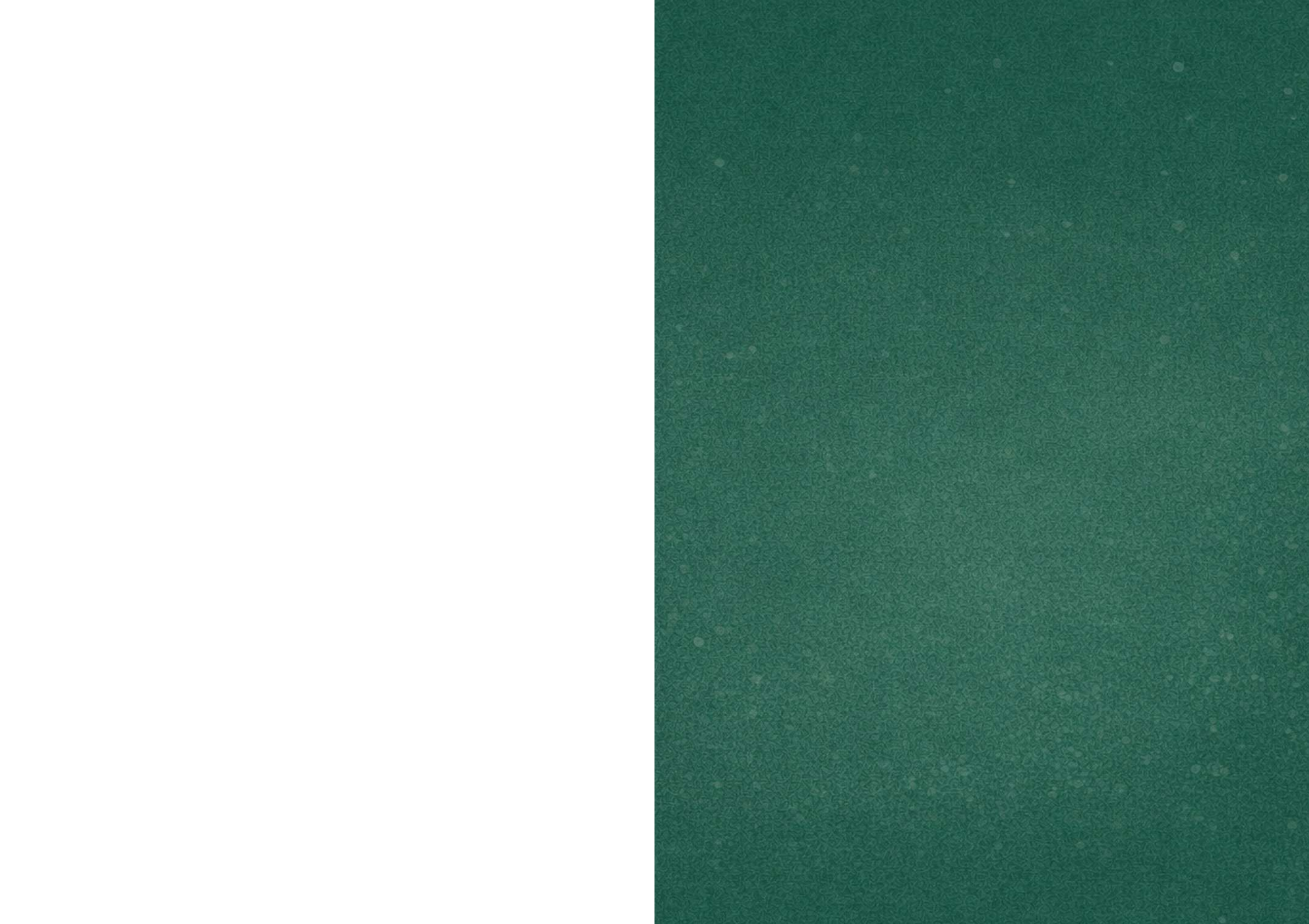


# 탄착점

2025년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

추리소설가 김성중



추리소설가 김성종

# 탄착점

2025년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



부산문화재단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의 자료를 정리하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자 합니다.

2025년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을 통해  
네 분의 문화예술인들을 선정하여  
작품활동에 대한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홀연히 부산으로 와  
달맞이길 위에 추리문학관을 세우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나라 문학계에 한 획을 긋고,  
지역 문학 발전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바로 추리소설가 김성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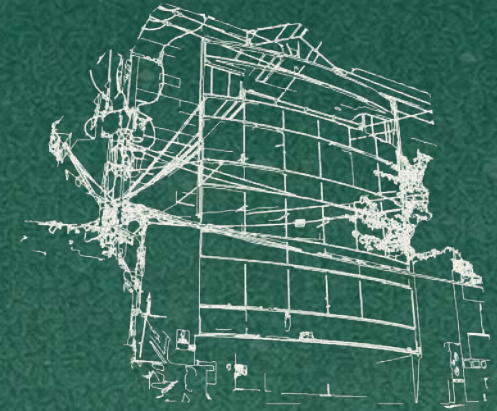
탄착점은 총알이 끝내 도달하는 자리이자,  
그 흔적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지점입니다.

긴 시간 속에서 써 내려간 문장이 남긴 깊은 흔적,  
그의 자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역사의 상흔을 딛고 글과 사유로 이룬 문학의 탄착점이  
또 다른 문화예술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본 자료집은 '2025년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을 통해 수집한 기록물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기록물은 기록물명, 생산년도, 기타사항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 쉬운 이해를 위해 수집한 기록물을 생애 순으로 소개하였습니다.
- 수집한 기록물중 발간 자료의 경우 「」로 공연 작품의 경우 〈〉로 문화행사의 경우 ≪≫로 표기하였습니다.
-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기록물에 후보정을 더하였습니다.
- 별도의 기증자가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록물은 '김성종' 선생님께서 기증 받으셨습니다.

# 목차



## 제1장 질곡의 역사

1. 태어나다
2. 언더우드
3. 신춘문예

## 제2장 획을 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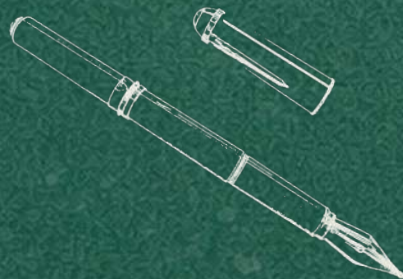
1. 최후의 증인
2. 黎明의 눈동자
3. 아침이 오다

## 제3장 안녕, 부산

1. 정착하다
2. 부산의 소설가
3. 추리문학관

## 제4장 바람을 타고

1. 오늘도 추리
2. 경계를 허물어
3. 달맞이길 문화명소



# 제1장. 질곡의 역사

## (1940~60년대)

올해로 세는 나이 85살, 전쟁이 끝난지는 71년,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74년이 지났다.

그러나 안즉 잊혀지지 않는다. 징용가신 아버지와  
불러온 배를 붙잡고 다섯 남매를 끌고 피난 가시던 어머니의 모습.

부산을 거쳐 여수로 도착한 가족이 맞이한 것은 폐가 한 채와  
두 생명의 죽음, 그리고 지독한 고독이었다.

1941

- 1941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 출생
- 1948 서울 일신국민학교 입학

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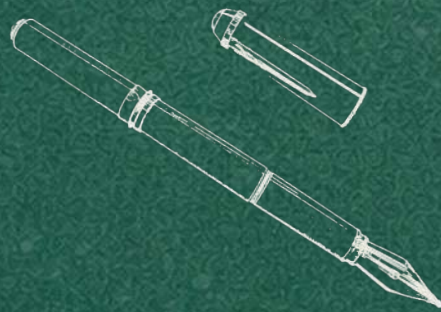
- 1951 피난길에 오르다
- 1951 여수로 가다
- 1951 어머니와 막내를 잃다
- 1951 전라남도 구례에 정착

1959

- 1959 구례고등공민학교 졸업
- 1960 구례농업고등학교 진학
- 1963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학

1969

- 1969 「경찰관」 신춘문에  
당선 (조선일보)



# 1-1. 태어나다



## 제1장 질곡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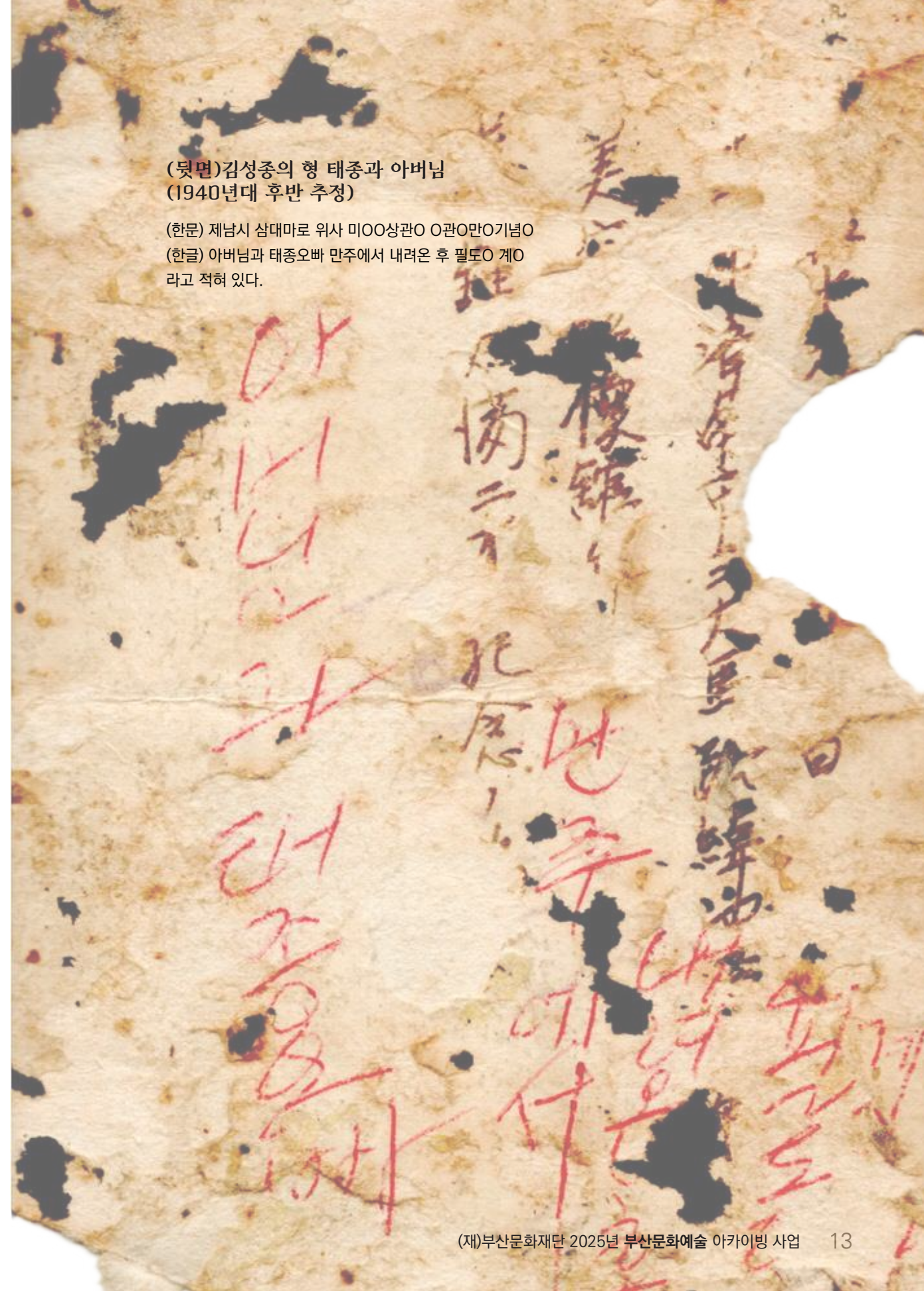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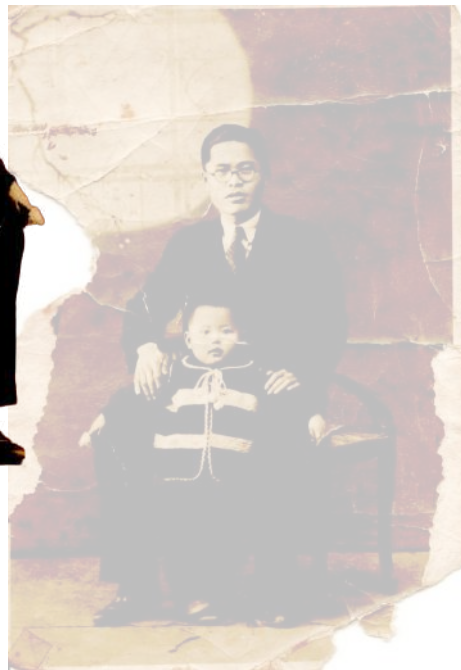
김성종은 전라도 구례가 고향이었던 아버지 김춘성과 평안도 신의주에서 온 어머니 김선산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중국 산둥성 지란시에서 만나 결혼했고, 1941년 12월 31일 둘째 김성종을 낳았다. 광복 후엔 서울 중구 필동에 자리잡았다. 김성종은 양친의 밑에서 서울 일신 국민학교를 다니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아버지는 제주도로 징용가고 1.4 후퇴 때 만삭의 어머니가 다섯남매를 이끌고 부산을 거쳐 여수까지 피난을 갔다. 당시 서른 여섯살이던 어머니는 여섯째를 낳고 12일만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막내 '영종'도 젖을 먹지 못해 굶어 죽었다. 이때의 기억은 김성종의 평생에 영향을 끼쳤다.



김성종의 아버지, 형 태종 (1940년대 후반 추정)

김성종의 형인 김태종과 아버지가 만주에서 내려온 이후에 찍은 사진이다.



(뒷면) 김성종의 형 태종과 아버님 (1940년대 후반 추정)

(한문) 제남시 삼대마로 위사 미OO상관O O관O만O기념O  
(한글) 아버님과 태종오빠 만주에서 내려온 후 필도O 계O 라고 적혀 있다.

1-2.

# 언더우드



## 제1장 질곡의 역사

징용갔던 아버지가 돌아온 후 다섯남매는 아버지의 고향인 전남 구례에 정착했다. 김성중도 구례고등공민학교를 나와 검정고시를 쳤고, 구례농업고등학교에 (현 전남자연과학고) 입학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1963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넉넉하지 못했다,

다시 먹고 자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대학생할 내내 가정교사 일을 하고 한번은 서너 끼를 굶다가 학교 식당에 찾아가 밥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 끼니 걱정은 직장인이 된 이후에야 덜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참 힘들었다. 그런 그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은 바로 '문학'이었다.



### 김성중 사진 앨범 (1940-1970년대)

김성중 추리문학관 5층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앨범이다. 앨범 안에는 그의 어린시절부터 대학시절, 젊은 김성중의 모습과 「최후의 증인」 당선 당시의 사진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부 사진 뒤에는 '오빠' 호칭과 함께 사진 설명이 적혀있는데, 해당 사진들은 김성중의 여동생이 촬영 또는 정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 연세대학교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쓴 김성중(1969)

(아래) 연세대 언더우드관 앞에서(연도미상)



(왼쪽) 젊은 시절의 김성중 (1960년대 추정)

어려웠던 청년 시절 김성중은 폐결핵을 앓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부쩍 야윈 모습이다.

배는 고팠지만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공민학교 때에는 '괴도 뤼팽'에 놓고 시절에는 소설가이자 정치인이기도 했던 '앙드레 말로'에 매료되었다. 행동주의 문학이 좋았다. '희망' '인간의 조건' '정복자' 등을 읽고 습작도 했다.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소설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앙드레 말로의 영향이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문학에 매달렸다. 졸업논문조차 순수 정치외교가 아닌 「6.25 이후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정치성 연구」로 당시 국어국문학 교수였던 만우 박영준 교수의 지도를 받아 졸업했다.

1-3.

# 신춘문예



## 제1장 질곡의 역사

당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그의 친구들은 외교관 시험이나 사법고시, 언론 그것도 아니면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곳에 취직했다. 그도 진학사의 영어담당 기자부터 시작해서 여원, 여성중앙, 독서신문 등 잡지사를 돌아다니며 근무를 했다.

그렇지만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은 소설을 쓰는 것이었다. 기자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글을 썼던 김성종은 이미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던 해 「경찰관」이라는 소설로 신춘문예에 등단한 소설가였다.



명동성당 쪽에서(연도미상)

김성종은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발간한 《창조》라는 월간지에서도 2~3년 정도 일했다. 그때 당시 시인 김지하가 ‘오적(五賊)’ 이후에 쓴 시로 남산에 끌려간 적도 있었다.



유진오 박사 인터뷰(1970년대 추정)

김성종이 기자로 근무했을 당시 정치인이었던 유진오 박사 (왼쪽)와 마주 앉아 취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진학사 근무 시절 김성종(1975)

김성종이 진학사 영어 담당 기자로 근무할 당시 찍었던 사진이다. 당시 김성종 외에도 현재 원로가 되었으나 한때 기자로 활동한 문인들이 꽤 있었다. 시인 강은교(왼쪽 사진 가운데) 역시 김성종과 같은 진학사에 근무했었고,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윤후명 또한 독서신문에서 함께 일했던 기자였다.



처음에는 미술대학에 진학하려 했어요.

... 미술에 흥미가 있었는데 단숨에 삶이 바뀌었지요.

아버지께서 ‘미술 하면 평생 굶고 산다’ 고 한마디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단념했지요. 삶은 이렇게 순간에 변해요.

팔자(八字)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설을 쓸 때도 반대했나요?

“그때는 아무 말 없으셨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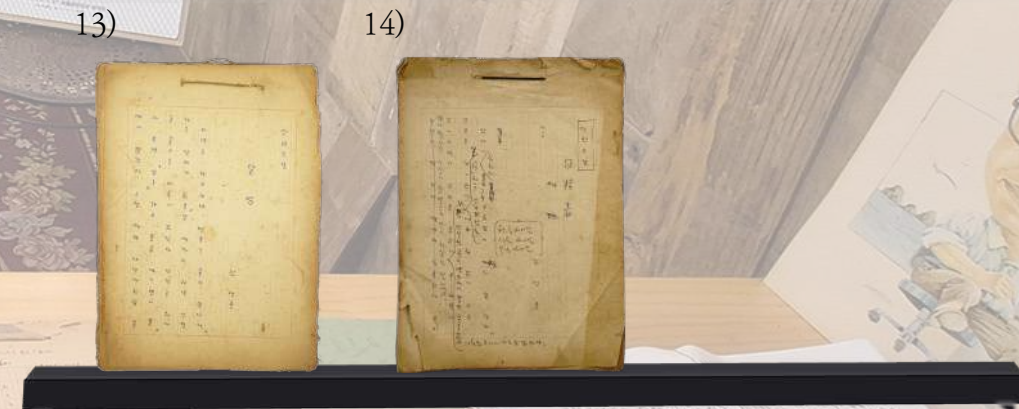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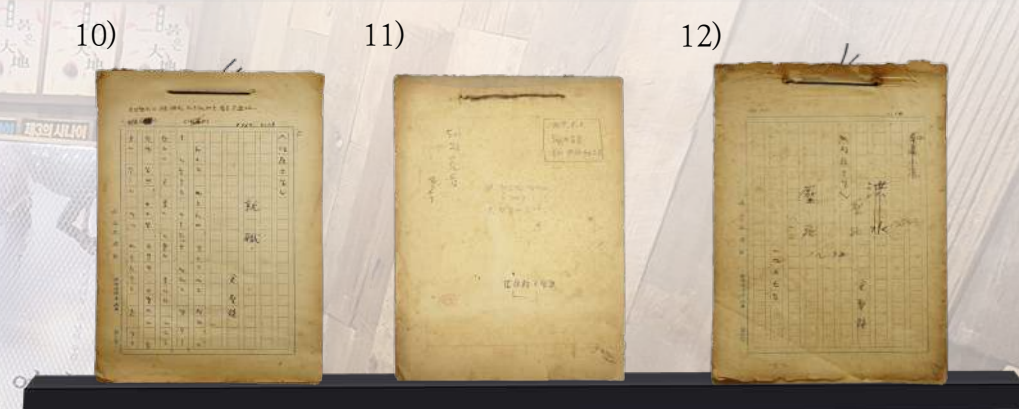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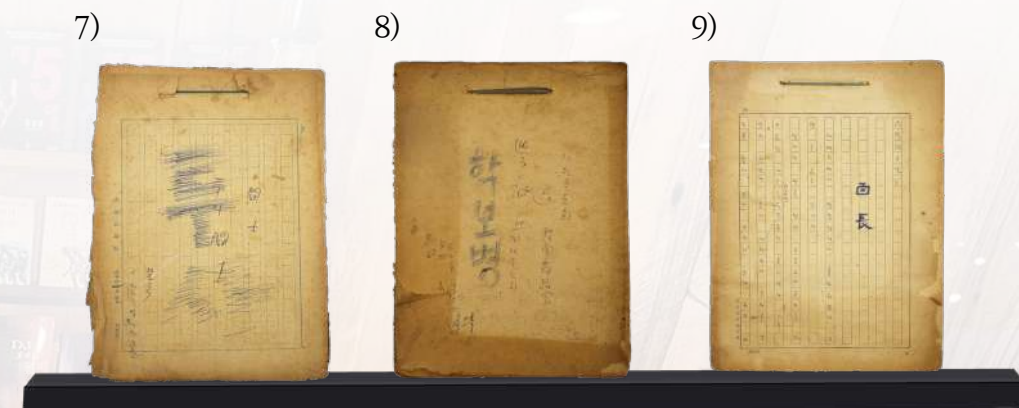
문갑식의 인간증명 2019년 3월호.

한국 추리문학의 大山脈, 작가 김성종이 엮어낸 인간 드라마

Epilogue

# 1960년대 작품

김성종이 대학생이었던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쓴 소설이다. 원고 중 「암표장사」를 보면 '중앙사서관에서'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성종이 대학생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소설을 써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 |                                  |                     |                       |
|----------------------------------|---------------------|-----------------------|
| 1) 「콜걸」 (1965)                   | 5) 「사육」 (1966.9)    | 10) 「취직」 (1967.2.3)   |
| 2) 「1950년대 초기의 인형극」 (1965.11.25) | 6) 「투사」 (1966.10.6) | 11) 「돼지웃음」 (1967.5.3) |
| 3) 「적자생존」(1966.2.9)              | 7) 「투사」 (1966.10)   | 12) 「암사」 (1967)       |
| 4) 「암표장사」 (1966.3.18)            | 8) 「학보병」 (1966)     | 13) 「달밤」 (1968.6.29)  |
|                                  | 9) 「백장」 (1967.1.19) | 14) 「일정표」 (연도미상)      |

\* 현재 해당 원고들은 추리문학관 2층 수장고에 전시중이다.

## 제2장. 획을 긋다 (1970년대)

추리소설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추리를 좋아한다.  
그렇기에 추리소설은 제대로 써야한다.  
그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추리소설에 실망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추리소설을 쓴다.  
나의 추리소설이 시대를 관통하는 작품으로 남기를 바라며.

1971

- 1971 「17년」 추천  
(현대 문학 8월 호)
- 1972 「슬픔」
- 1973 「어느 창녀의 죽음」

1974

- 1974 「낮」 (북한 제31호)  
「사형집행」  
한국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  
「최후의 증인」 당선

1975

- 1975 「습지식물」  
「여명의 눈동자」 연재
- 1976 「김교수님의 죽음」
- 1977 「소년의 꿈」

1979

- 1979 「고독과 굴욕」  
「부랑의 강」



2-1.

# 최후의 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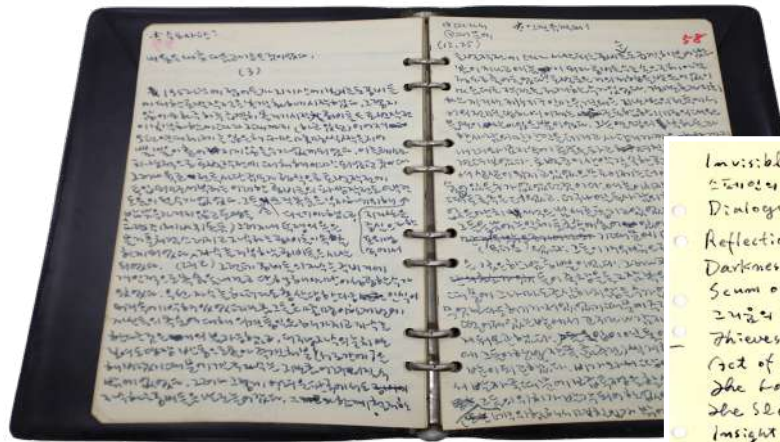


제2장  
희을  
긱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노인 황바우의 출옥.  
그리고 이어지는  
의문의 살인사건.  
그 뒤에 숨은 한국 전쟁과  
빨치산의 슬픈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 소설이  
바로 「최후의 증인」이다.



「최후의 증인」 초고 1, 2  
(1970년대 초반 추정)



「최후의 증인 초고」 초고 2 (펼친 모습)

- Invisible Writing · 1954
- 스웨덴의 유전
- Dialogue with Death · 1937
- Reflections on Hanging · 1957
- Darkness at Noon · 1941
- Scum of the Earth · 1941
- 그녀의 죽음
- Thieves in the Night · 1946
- Act of Creation · 1964
- The Lotus and the Robot · 1961
- The Sleepwalkers · 1955
- Insight and Outlook · 1949, 1955, 1959
- The Ghost in the Machine · 1969
- by Arthur Koestler
- L'Homme Révolté : Camus
- Le prix de la Guerre : Hans Kellern

「최후의 증인 초고」 초고 1  
(참고 소설)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작품을 만났다. 기자 출신이었던 작가 포사이드가 쓴 「자칼의 날」이었다. 스릴러 소설이자 박진감 넘치는 첩보 소설이었던 그 소설을 읽고 김성종은 '추리소설'을 쓰겠다 마음 먹었다.

초기에 썼던 소설도 지금 보면 추리소설처럼 보일지 모르나 본격적으로 추리소설을 쓰겠다고 마음먹고 매달렸던 건 바로 그때였다. 대작을 쓰겠다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소설이 「최후의 증인」이었다.

이 소설은 이 세상의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바친다

1장 - 3장  
"최후의 증인" [1]  
동남아시아  
이 소설은 이 세상의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바친다

‘이 소설을 이 세상의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바친다’ (초고 2에서는 ‘억압’이 아닌 ‘압박’으로 변경되었다.)

23일까지 14:30 130 8:30  
13 8 5 2000  
136 168 1830 92  
304 201830  
x 2 201830  
2128 30  
304 54 2000  
1824 2000  
1824 168 2000  
1656 2000  
16 1656 2000  
64 2000  
400 2000  
4 2000  
4 2000

최후의 증인 초고 1 (앞장)

내용을 살펴보면 소설의 초고와 함께 분실한 노트를 주을 시 독서신문사의 김성종 기자 앞으로 연락달라는 메모가 함께 적혀있다. 또한 23일까지 매일 20매씩 원고를 써야 함을 계산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2-1. 최후의 증인

# 200만원 당선소설



제2장  
획을  
긋다

한국일보 감사패(1984)

1984년 9월 26일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15주년을 맞이하여 김성중에게 전달한 감사패이다. 한국일보 20주년 당선 당시에 받았던 감사패(우측 아래)와 동일한 디자인이다.



한국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200만원 고료 당선 시상식(1974)

한국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 당시 소설가 김동리(왼쪽)와 박영준 그리고 문학 평론가인 김윤식 총 세명이 심사를 맡았다.



- 1) 「최후의 증인」 (1980, 이두용)
- 2) 「흑수선」 (2001, 배창호)

「최후의 증인」은 두차례의 영화로 제작되었다.

1980년 감독 이두용 작의 경우 개봉 당시 검열로 영화 내용이 상당수 편집 되었는데, 이후 2005년에 원본을 재상영하게 되었다. 「흑수선」의 경우 2001년에 리메이크한 영화로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이기도 했다.

「최후의 증인」 초판본  
(1977, 태종출판사)



나는 응모작인 「최후의 증인」 원고 표지에다 차마 장편추리소설이라 밝히지 못한 채 일반 소설인 것처럼 '추리'자를 빼고 장편소설이라고 적어서 신문사에 보냈다.

아무튼 겉표지에다 추리소설이란 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최후의 증인」을 당선작으로 뽑았고, 이튿날 한국일보에는 당선작에 대해

“한국전쟁의 비극을 추리적 기법으로 형상화한 작품”  
이라는 심사평이 실렸다.

「최후의 증인」 재출간 기념 작가의 말. '상처뿐인 영광을 어루만져 주는 손길' (2015.6)

## 2-1. 최후의 증인

# 가정을 꾸리다

1970년도 기준으로 200만원은 큰 돈이었다. 화곡동에 집을 사고도 돈이 남았었다. 덕분에 남은 돈으로 결혼식도 치루어, 가정을 꾸렸다. 그때 김성종의 나이가 34세였다.



제2장  
획을  
긋다



### 결혼식에서 신랑입장 전 김성종(1974)

식장 밖에서 신랑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장가 가는 새신랑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결혼식 주례는 김성종의 논문지도교수였던 박영준 교수가 맡았다.



### 김성종과 최애경의 결혼식 (1974)

1971년 독서신문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 삼성출판사에서 근무하던 아내 최애경을 만났다. 「최후의 증인」 완성 이후 원고를 보자기에 써서 한국일보 문화부에 가져다준 사람도 아내였다. 이후 둘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슬하에 3남을 두었다. 현재 추리문학관 관장과 기획실장으로 생애를 함께하고 있다.



### 김성종과 최애경 그리고 첫째 아들 지수(1977)

김성종은 아내 최애경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을 뒀다. 사진 속 아이는 첫째 아들 지수이다.

2-2.

# 黎明 의 눈동자



제2장  
획을  
긋다

‘黎明(여명)’은 인도네시아말로 ‘마타하리’ 세계 1차 대전에서 활약한 국제 여간첩의 이름이기도 하다. 김성종은 여기서 제목을 고안하여 소설 「여명의 눈동자」를 썼다. 일제강점기 말부터 한국전쟁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소설이자 추리적 기법을 녹여낸 대하소설로서 김성종은 이 소설을 주간지였던 일간스포츠에 장장 6년동안 연재하였다.



여명의 눈동자 1458회 (1979~81년 사이 추정)

김성종이 일간스포츠에 연재했던 「여명의 눈동자」 1458회 연재분 기사이다. ‘붉은 도시’라는 소제목이 적혀있는데 이는 단행본상 9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여명의 눈동자」 초판본 (1977, 태종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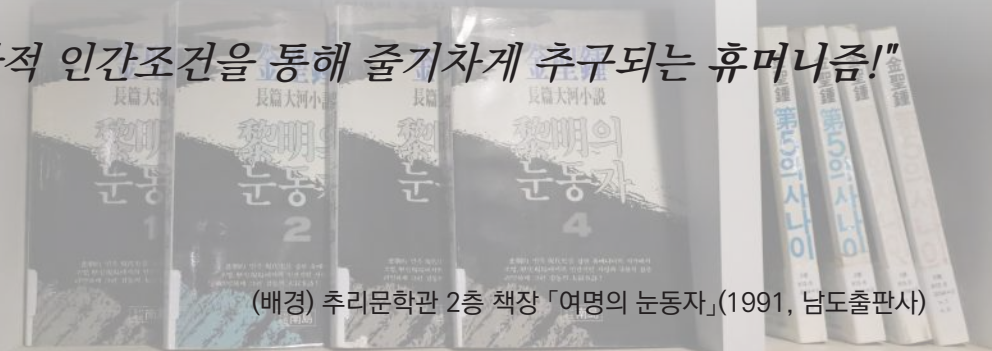
김성종이 「여명의 눈동자」를 연재한 것은 1975년부터 1981년까지이다. 위 단행본은 완결 전 태종출판사에서 기 연재분을 모아 출간한 것이다.

"폭발적 인기 속에 지금까지 3년, 앞으로도 3년 이상을 더 일간스포츠에 연재될 전쟁대하소설"



\* 왼쪽부터 「여명의 눈동자」 2003, 1991, 1980, 1979, 1978년판 뒷면

"극한적 인간조건을 통해 즐기치게 추구되는 휴머니즘!"



(배경) 추리문서관 2층 책장 「여명의 눈동자」(1991, 남도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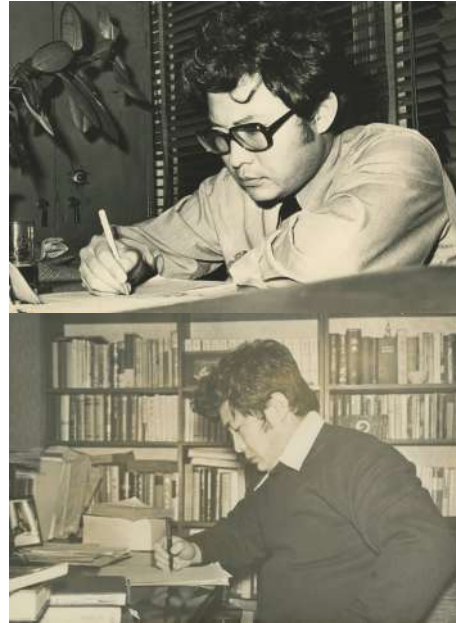
2-3.

# 아침이 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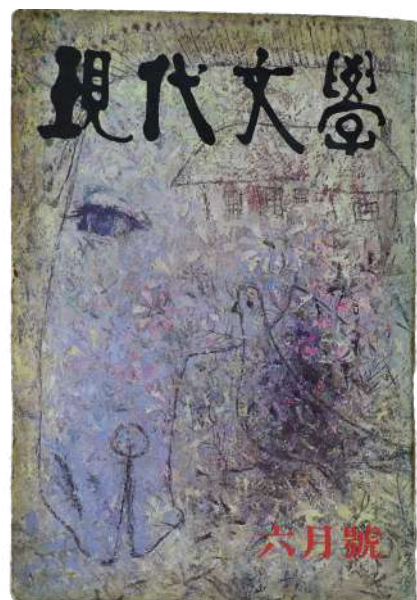
1970년대는 김성중이 추리작가로서 나아가는 시기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소설사에 한 획을 그은 시기였다. 특히 1970년대 부터 1990년까지는 바야흐로 신문 연재소설의 전성기였다. 김성중도 당시 최대 여덟개까지 소설을 연재해보았다고 기억한다. 마감일에 쫓기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김성중은 신문 연재 15년동안 휴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독자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제2장  
획을  
긋다



작업실에서 김성중(1970년대 추정)



### 「현대문학」 6월호 (1973)

김성중은 1971년에 「17년」이라는 소설로 현대문학 추천을 받았고, 이후 현대문학 1976년 6월호에 「어느 창녀의 죽음」을 연재했다. 해당 소설의 경우 완전한 추리소설은 아니다. 그러나 김성중 작가 본인이 처음 추리기법을 적용한 작품이었다고 평한 바 있다.

일간스포츠 장기영 사장이 와서  
소설을 하나 더  
연재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대답했죠.

아니 이미 연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소설을 연재하느냐고...  
그랬더니 가명으로 연재를 하래요.  
가명으로.

그렇게 “추정”이라는 가명으로  
「제5열」이라는 소설을 연재했었어요.

같은 일간지에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이  
소설을 두개나  
연재하다니...

신문 소설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젊은 시절의 김성중(1970년대 추정)

金聖鍾  
장편추리소설

第5列

범죄집단의 국제음모를 적나라하게 파  
미스터리!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스피  
치밀한 구성, 냉혹한 묘사로 독자들을  
사로잡는 金聖鍾 추리소설의 백미!

해친공포의  
디킨슨의

● 상 ● 중 ● 하  
● 각권 3,000원

● 살해당한 아버지의 원한을 풀기 위  
해 복수심에 불타는 아들, 그의 얼굴  
을 갖고 비정한 살인을 자행하는 국  
제킬러, 마지막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야욕을 채우기 위해 광분하는  
범죄집단의 총수Z 그리고 필사적으  
로 이들을 쫓는 수사기관원들이 위  
어내는 초대형 범죄극!!

도서출판 南島 남도리 5동 530-27 1시빌링  
305호 • 248-9195/249-9195

### 「제5열」 출판 광고지 (1985)

1985년 12월 22일  
스포츠서울에 게재된  
「제5열」 단행본 광고지이다.  
김성중은 「제5열」을 일간스포츠에  
1977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연재하였다. 이후 1978년 출판사  
남도에서 단행본 초판을 발간했다.

# 제3장. 안녕, 부산 (1980-90년대)

갈빗집밖에 없었는데,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어.  
'문학관' 이라고 하더라. 그것도 '추리문학관' 이래.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소설 역사의 획을 긋고  
홀연히 서울을 떠나 부산에 터를 잡고 살아온  
작가 '김성중'의 이야기이다.

달맞이고개 위 '추리문학관'이 생긴지도 벌써 30년.  
해풍의 도시와 함께 더욱 멀리 나아왔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 1980

- 1980 부산으로 이사  
「일곱개의 장미송이」  
「서울의 만가」  
「회색의 벼랑」
- 1981 「죽음의 도시」  
「죽음을 부르는 소녀」
- 1982 「백색인간」  
PEN 산악회 조직
- 1983 「제5의 사나이」  
「미로의 저쪽」
- 1984 「반역의 벽」  
「아름다운 밀회」  
「얼어붙은 시간」  
「제3의 정사」

##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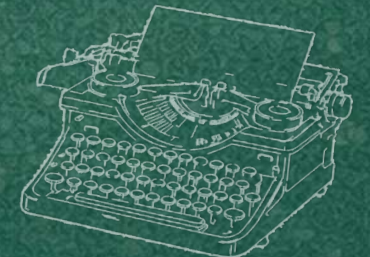
- 1985 「피아노 살인」,  
「경부선특급 살인사건」
- 1986 「라인X」  
「국제열차 살인사건」  
**제2회 추리문학대상 수상**
- 1987 「형사 오병호」  
「서울의 황혼」
- 1988 「안개속에 지다」  
「나는 살고싶다」  
「비련의 화인」  
**계간지 '추리문학' 창간**  
「한다면 하는 여자」
- 1989 「최후의 밀서」  
「제3의 사나이」

## 1990

- 1990 「불타는 여인」  
「슬픈 살인」  
「비밀 10+9」  
**제1회 한일 추리작가대회 참석**
- 1991 「홍콩에서 온 여인」  
「비밀 91+a」
- 1992 「버림받은 여자」  
**추리문학관 개관**  
「시스템 프로그램」  
「비밀 92+β」, 「비밀 92+r」
- 1993 「세 얼굴을 가진 사나이」
- 1994 「끝없는 복수」  
**제5회 봉생문화상 수상**

## 1995

- 1995 「여자는 죽어야 한다」
- 1996 「가을의 유서」  
「돌아온 사자」
- 1997 「코리언 X파일」  
해운대포럼조직
- 1998 「한국 국민에게 고함」  
**부산추리작가협회 회장**  
《제1회 달맞이길철학축제》



3-1.

# 정착하다



제3장  
안녕,  
부산

삼익비치에 이사를 온 후 보니 이 큰 아파트에 서점이 없었다.

그래서 직접 서점을 열었는데 이름도 이상하게도 참...  
'도스토예프스키의 집' 이라고 짓고는 참고서 하나 없이 운영을 하니  
결국 책이 안팔려 문을 닫았다.

그런데 오히려 책 한권 팔지 못했던 경험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더 오래도록  
부산에 뿌리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바다 좋아. 釜山 정착"**  
추리소설 작가 金聖鍾씨

|| 69년 조선일보 新春 당선 ||  
|| "서울 생활은 이제 싫어" ||

1984년 주간경향 810호 기사



(김성종) 자택 아파트 베란다에서 김성종(1980년대 추정)



1) 달맞이길 도로 위  
2) 황령산 위에서 김성종과 최애경  
3) 광안리 백사장에서

당시 부산일보에 「안개 속에 지다」를  
연재하고 있을 때였다. 연재 때문에  
서울과 부산을 왔다갔다 거리던 차  
광안리 해변에 삼익비치가 지어지고 있었다.  
아파트가 멋져보이기도 했고,  
머리 아픈 서울을 떠나고 싶기도 했다.



4) 해운대 백사장에서 막내 화수와 망중한  
5) 해운대 백사장에서 김성종 가족  
6) 자택 아파트 베란다에서

모두가 상경을 외치던 1980년대  
김성종은 부산에 왔다.  
광안리 바다가 주는 매력과  
샘솟는 소재, 그리고 설정이  
부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

3-1. 정착하다

# 그때 그시절



제3장  
안녕,  
부산

### 마라톤 88TR 타자기 (1980년대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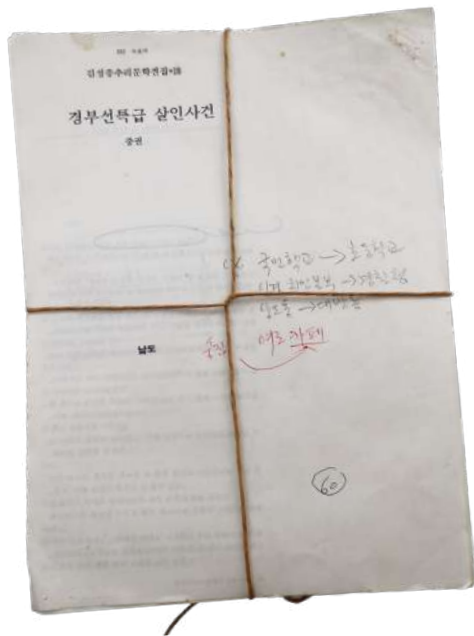
동아정공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제조한 수동식 4벌 한글 타자기이다. 오른쪽 조절기 쪽을 보면 '86 아시아 경기대회 타자기 공식 공급업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이를 통해 김성중은 해당 타자기를 1986년도 전후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옆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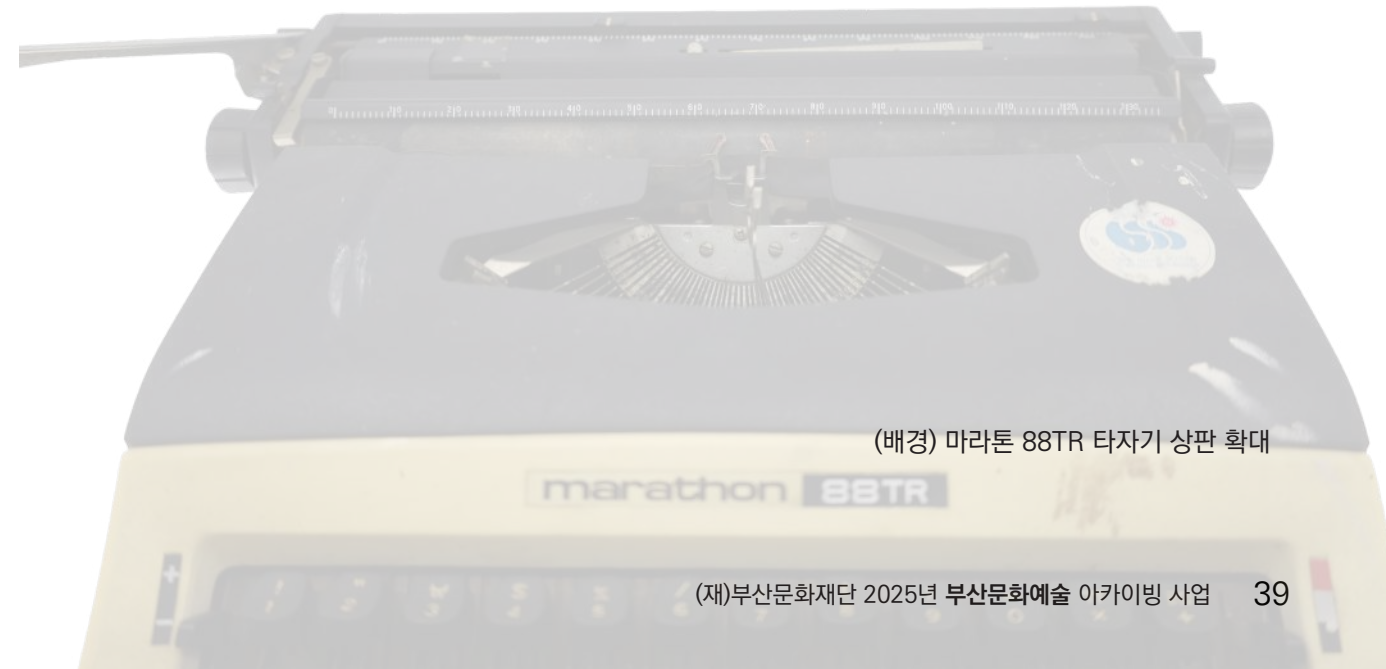


김성중은 사무실과 집 곳곳에 타자기를 놔두고 글을 썼다. 추리문학관을 가보면 김성중이 사용했던 타자기가 남아있다.



### 「경부선 특급 살인사건」 원고(1985년)

남도출판사에서 발행한 '김성중추리문학전집18'에 수록된 「경부선 특급 살인사건」 중권 원고이다. 17권이 1985년에 발행된 것이 확인되므로 18권의 경우 1985년 혹은 그 이후로 추정된다. 원고를 보면 타자기로 쳐서 인쇄한 내용 위 수기로 고쳐 쓴 흔적들이 있다.



(배경) 마라톤 88TR 타자기 상판 확대

## 3-2. 부산의 소설가



제3장  
안녕,  
부산

1970년대에 「최후의 증인」, 「여명의 눈동자」 등 굵직한 작품을 발표하여 추리문학의 장을 연 김성종은 1980년대에 이르러 폭발적인 양과 속도로 '추리'라는 장르를 넓혀갔다. 1970년대가 추리문학의 가능성을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1980년대는 역사, 정치, 도시와 인간의 마음 속 어둠까지 추리기법으로 끌어안으며 김성종식 대중문학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가는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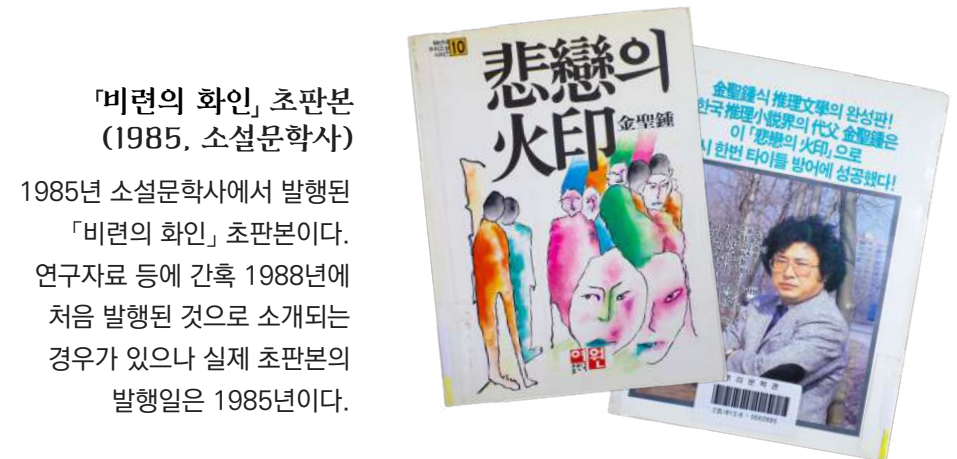


김성종 「피아노 살인」 1985년 초판본과 해당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미스터리 뮤지컬 티켓이다. 1933년 4월 1일부터 18일까지 학전 소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왼쪽) 「피아노 살인」 (1985, 명지사)  
(아래) 「피아노 살인」 뮤지컬 티켓(1993)



1) 「슬픈 살인」 초판본 (1992, 추리문학사) 속 「국제열차살인사건」 광고 지면  
2) 「Z의 비밀」 중판본 (1990, 명지사) 속 광고 지면  
3) 「슬픈 살인」 초판본 (1992, 추리문학사)



「비련의 화인」 초판본 (1985, 소설문학사)  
1985년 소설문학사에서 발행된 「비련의 화인」 초판본이다. 연구자료 등에 간혹 1988년에 처음 발행된 것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초판본의 발행일은 1985년이다.



제2회 한국추리문학대상 상패(1986)  
1986년 11월 15일 한국추리작가협회에서 김성종에게 수여한 제2회 한국추리문학대상 상패이다. 수상 작품은 「비련의 화인」이다.

3-2. 부산의 소설가

# 읽는 이를 위하여



제3장  
안녕,  
부산

부산에 정착한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수많은 소설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교실, PEN 산악회 등 다양한 경로로 독자와 소통하며 '부산의 소설가'로서 입지를 굳혀 나갔다.

## 해변에서 계곡에서 '문학과 인생'을 생각한다

### 여름추리소설학교(1988)

1988년 스포츠서울에 실린 기사로 한국추리작가협회에서 지리산 쌍계사 계곡에서 개최하는 여름추리학교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이며 당시 김성종은 '작가의 체험담' 강좌를 맡아 진행했다.



## 여름학교



지리산 산행 중 강의하는 김성종(1982년)



한국추리작가협회는 1982년부터 '여름추리소설학교'를 개최해왔다. 작가부터 교수, 경찰관 등을 초빙하여 강좌를 진행하고, 명소를 순례하며 캠프를 즐기기도 하는 문화행사이다.

### PEN 산악회 깃발을 들고 있는 김성종(1983)

PEN 산악회는 부산소설가협회에서 파생된 단체로 소설가들이 모여 함께 산행도 하고 문학강의도 곁들이고자 결성한 단체였다. 김성종의 PEN 산악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데, 산악회 전화번호는 추리문학관 번호이기도 했다.



이들동안 구례 피아골 계곡에서 회원, 일반 독자 등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펼친 제1회 문학기행 행사는 스스로에게 경종을 울리는 자리였다.

... IMF 통치로 마감하는 20세기를 털어내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 하는 일에 문학인들이 앞장서자는 각오에서 비롯되었다.

부산 민족문학작가회의·부산소설가협회 제1회 문학기행 세미나 '지리산과 문학' 중 (1998)

Epi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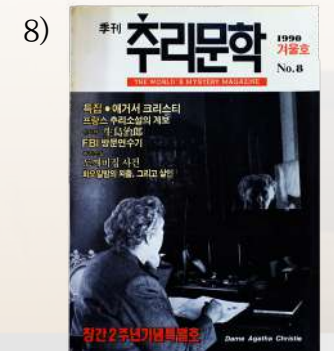
# 추리의 계절



## 제3장 안녕, 부산

더 많은 추리소설 작가들이 추리소설을 쓸 수 있도록 「계간 추리문학」이라는 계간지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추리소설 전문 잡지였다. 좋은 추리소설을 소개하고 새로운 작가 발굴을 위해 '김내성 문학상'을 제정하여 고료 1천만원의 공모전을 주최하기도 하였다. 비록 「계간 추리문학」은 10호를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이후 「미스터리 매거진」 같은 추리 전문 잡지가 창간되는 등 국내 추리문학 활성화에 영향을 끼쳤다.

\*계간 추리문학이 출판사 '대작사'에서 발간되었다는 정보가 존재하나 서지사항을 확인해보면 '추리문학사'에서 출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작사'와 '추리문학사' 모두 김성중이 운영했던 출판사는 맞으나 해당 시기에 운영하던 것은 '추리문학사'로 추정된다.



1) 「계간 추리문학」 1988 겨울호 No.1  
2) 「계간 추리문학」 1989 봄호 No.2  
3) 「계간 추리문학」 1989 여름호 No.3  
4) 「계간 추리문학」 1989 가을호 No.4

5) 「계간 추리문학」 1989 겨울호 No.5  
6) 「계간 추리문학」 1990 봄여름호 No.6  
7) 「계간 추리문학」 1990 가을호 No.7  
8) 「계간 추리문학」 1990 겨울호 No.8  
9) 「계간 추리문학」 1991 봄여름호 No.9  
10) 「계간 추리문학」 1991 가을호 No.10

3-3.

# 추리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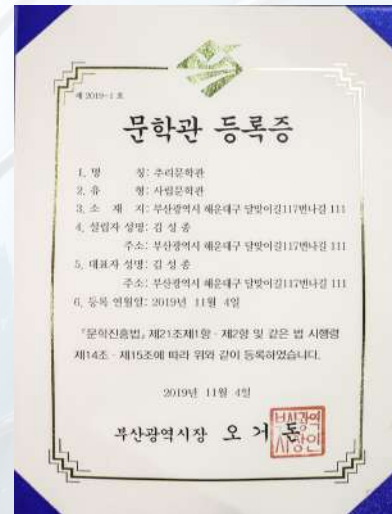


제3장  
안녕,  
부산

1992년 김성종은 달맞이고개 위 사재 20억원을 들여 국내 첫 추리문학관을 건립했다. '추리문학관'은 국내 제1호 전문도서관이기도 하다. 작가 개인을 기념하는 문학관은 많지만 '추리'라는 한 장르를 위한 문학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세계 어느 곳을 통틀어 보아도 드문 일이었다.

### 추리문학관 등록증(2019)

2019년 11월 4일 문화진흥법에 따라 추리문학관(사립)으로 등록하였다는 증서이다. 추리문학관은 추리장르로서 우리나라 최초이자 국내 첫 전문도서관이다.



### 문화부 장관 감사패(1982)

추리문학관을 건립한 것에 대하여 '도서관 문화 창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감사패이다.



□ '실록 홈즈의 집'에는 부산대, 부산수산대, 한국해양대, 인제대 등 부산지역의 교수들이 자주 모인다.

### 추리문학관 소개 기사

(좌) 스포츠조선(1992.4.3)  
(우) 교수신문(1994.5.16)



### 추리문학관 앞 한·일 추리작가들(1992)

1992년 6월 8일 일본 추리작가 협회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고, 추리문학관에서 교류를 진행했다. (맨 오른쪽이 김성종, 오른쪽에서 세번째는 영문학자 이기형 교수)

(배경) 추리문학관은 5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1층은 북앤 카페, 2~3층은 열람실, 4층은 김성종 작가의 집무실, 그리고 5층은 작가의 사저로 사용하고 있다.

# 문학관 둘러보기



## 추리문학관 표지석

1992년 3월 28일 개관을 기념하여 세운 표지석이다. 표지석 상부를 보면 총알의 관통 자국을 묘사한 듯한 구멍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암살을 형상화한 김성종 작가의 아이디어이다.

## 추리문학관 2층 전경

추리문학관의 장서수는 약 5만권이고 총 315개 좌석이 있다. 책은 1~3층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하며 회원은 2권까지 도서대출이 가능하다. 2층에서는 매월 비정기적으로 걸작 영화들을 엄선한 '영화살롱'을 운영하고 있다.



추리문학관은 올해로 개관 33주년을 맞이했다. 추리문학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부산의 문학이 좀 더 부흥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던 추리문학관은 오늘도 달맞이길 위에서 변함없이 부산의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 추리문학관 1층 전경

예전에는 입장료를 내면 음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BOOK&CAFE로 운영하고 있다. 1층에서 정기적인 독서 모임이 열린다.

## 추리문학관 4층

김성종 작가의 작업실이자 자료실로 사용하고 있다. 작가가 수집한 각종 자료와 외국 추리소설 원서 등이 가득하며 목요일마다 4층에서 창작교실을 열기도 한다.



# 제4장. 바람을 타고 (2000년대 이후)

낯설었던 것도 잠시 부산에 뿌리내린지 40년.  
반평생의 시간을 부산에서 보내고 있다.

글이란 많이 읽고 써봐야 느는 법,  
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잘 써진다.

작품의 세계는 더욱 넓어지고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보려고 한다.

## 2000

- 2000 「DJ에게 보내는 편지」  
「서울의 만가」
- 2001 <춘향> 대본 집필
- 2002 <박혁거세는 알에서 나왔다>  
대본 집필
- 2004 부산시 문화상 수상

##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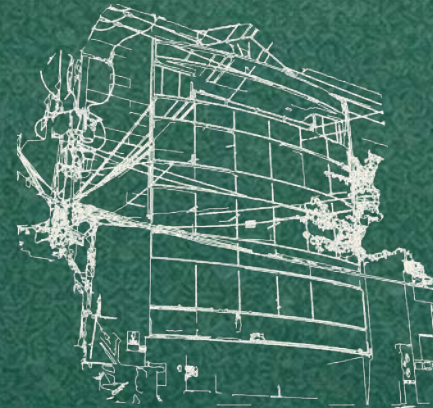
- 2006 「봄은 오지 않을 것이다」  
연극 「오해」
- 2008 「안개의 사나이」

## 2010

- 2011 「후쿠오카 살인」
- 2012 연극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  
《제14회 해운대달맞이인문학축제》
- 2013 「늑대소년 다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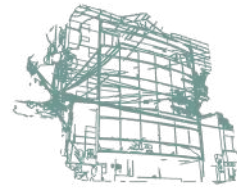
## 2015~

- 2015 「해운대 그 태양과 모래」  
「달맞이 언덕의 안개」
- 2017 「계엄령의 밤」
- 2022 오늘의 좋은 소설  
2022.봄 「오해」 집필  
추리박물관 개관 30주년  
(해운대구 표창)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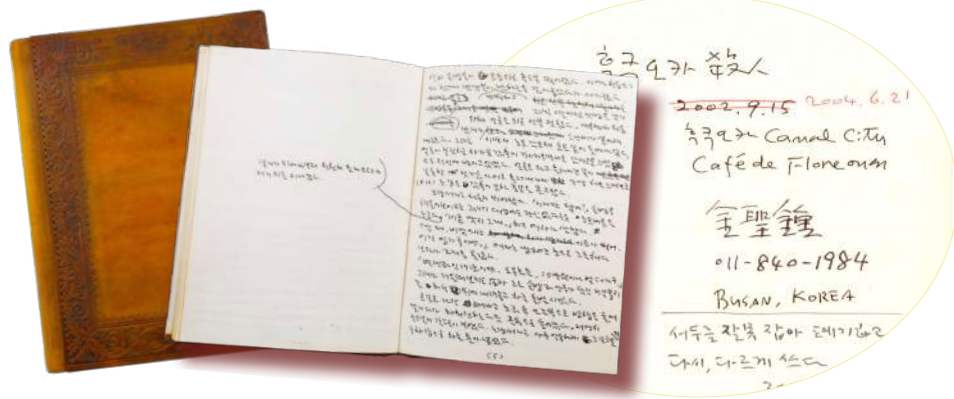
# 오늘도 추리



## 제4장 바람을 타고

오늘도 김성종은 달맞이 고개 언덕 위에서 집필을 이어나가고 있다. 혹자는 사람에게서는 저마다 전성기가 있고 언제나 끝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김성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밀레니엄 시대 속에서도 여실히 증명해오고 있다. 여전히 좋은 추리소설로 독자와 만나며 부산의 '원로' 작가로서 '추리문학'이라는 장르의 문을 오랫동안 열어두고 있다.



### 「후쿠오카 살인」 초고(2004)

첫 장을 보면 '2002.9.15' 위에 '2004.6.21'로 고쳐 쓴 흔적과 후쿠오카 캐널시티의 '플로레'라는 카페 이름이 적혀있다. 김성종은 평소 가까운 일본으로 자주 여행하곤 했다. 「후쿠오카 살인」 역시 여행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또 한편으로 추리문학이 활발한 일본 문학계로의 도전이기도 했다.

"...외국 추리소설엔 스톡홀름 살인, 헬싱키 살인 등 지명을 판 소설이 많아요. 살인은 거부감이 들지만 추리소설의 긴장감을 높이는 극적인 요소죠. 인간이 마지막으로 하는 극적인 행동이자 자기 파괴 행위죠. [책을 말하다-직격 인터뷰] 김성종 소설가, 2011.10.22, 부산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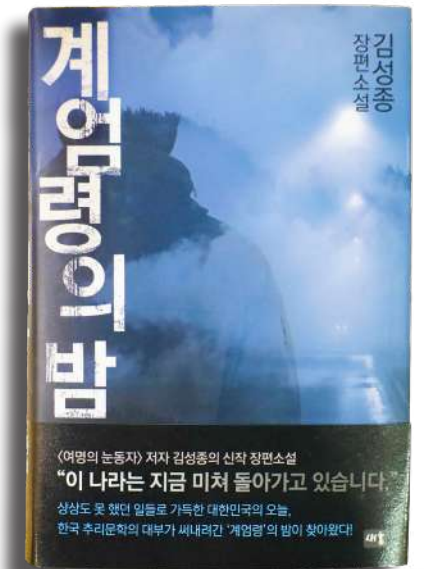


「후쿠오카 살인」 미니포스터 및 도자기(추리문학관 내)



「달맞이 언덕의 안개」  
초판본(2015, 새움)

2014년 부산일보에 매주 한회씩 「달맞이 언덕의 안개」를 연재해 2015년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해운대 달맞이언덕의 짙은 안개를 배경으로 한 연작 단편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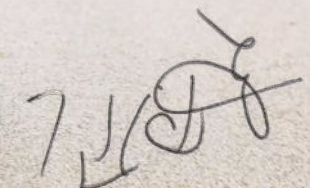


「계엄령의 밤」  
초판본(2015, 새움)

2014년 부산일보에 매주 한 회씩 「달맞이 언덕의 안개」를 연재해 2015년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해운대 달맞이언덕의 짙은 안개를 배경으로 한 연작 단편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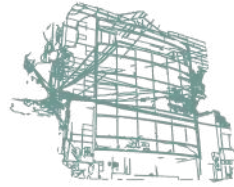
「해운대, 그 태양과 모래」  
초판본(2015, 새움)





4-3.

# 달맞이길 문화명소



## 제4장 바람을 타고

특정 지역에서 '거기'라고 대강 지칭하는 장소의 경우 사실 유명하거나 의미있는 장소일 확률이 높다. 달맞이길에서 '거기'는 응당 '추리문학관'을 떠올리지 않을까. 1992년 처음 문을 열었던 추리문학관은 지역의 문화명소로서 항상 아낌없이 자리를 내주며 달맞이길과 해운대 그리고 부산과 함께 성장해왔다.

《어울림 페스티벌》에서 김성종의 달맞이 토크 (2018)  
해운대구는 2018년 11월 10일 달맞이 어울마당에서 《어울림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해당 행사는 달맞이·청사포 문화마을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김성종이 '나의 문화와 달맞이 언덕'을 주제로 한 '달맞이 토크'를 진행하였다.



《제13회 달맞이언덕 철학축제》 포스터 (2011)  
김성종은 1997년 해운대의 예술·관광문화의 발전 그리고 달맞이 언덕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해운대와 달맞이길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해운대 포럼'을 조직하였다.  
해운대 포럼은 1999년부터 추리문학관을 비롯한 달맞이 언덕의 갤러리 등 문화 시설과 연합하여 문화 행사인 《달맞이언덕 철학 축제》를 개최해왔다.

가장 아름다운 언덕에서 펼쳐지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 축제

## 《제20회 해운대달맞이언덕 인문학축제》 (2018)



플뿌리 문화운동, 해운대포럼

《제20회 해운대달맞이언덕 인문학 축제》 포스터 (2011)  
13년을 이어온 《달맞이언덕 철학 축제》는 2012년 제14회를 기점으로 《달맞이언덕 인문학 축제》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해운대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부록 1.

# 김성종 작품

추리문학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와 김성종의 소설과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를 토대로 김성종이 집필한 소설을 단행본을 기준으로 표지와 발행일, 초·중판 여부 그리고 출판사를 함께 기재하였다. 서로 다른 소설 간에는 단행본이 먼저 출간된 순으로 정리하였다.

## 「최후의 증인」



발행일자 : 1977.2.1  
초판 / 태종출판사



발행일자 : 1982.12.5  
중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92.2.5  
중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96.8.20  
초판 / 고려원미디어



발행일자 : 2003.11.1  
중판 / 동서문화사



발행일자 : 2015.6.25  
초판 / 새움

## 「여명의 눈동자」



발행일자 : 1977.10  
초판 / 태종출판사



발행일자 : 1978.7.15  
초판 / 도서출판 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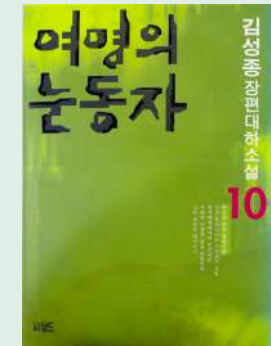
발행일자 : 1979.1.15  
중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80.9.10  
중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91.1.20  
중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2003.10.20  
중판 / 도서출판 남도

## 「어느 창녀의 죽음」



발행일자 : 1977.11.15  
초판 / 문학예술사



발행일자 : 1983.7.30  
초판 / 문학예술사



발행일자 : 1987.10.30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91.1.20  
중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94.9.26  
중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2012.9.25  
초판 / 도서출판 남도

「고독과 굴욕」



발행일자 : 1979.3.15  
초판 / 명지사



\*1990년대 발행 추정  
초판 / 명지사



발행일자 : 2005.2.3  
초판 / 스카이 미디어

「부랑의 강」



발행일자 : 1979.9.30  
초판 / 도서출판 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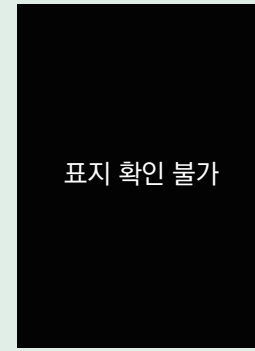


발행일자 : 1984.4.1  
중판 / 도서출판 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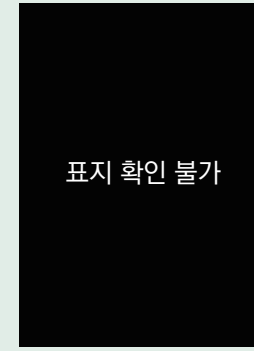


발행일자 : 2015.11.1  
중판 / 도서출판 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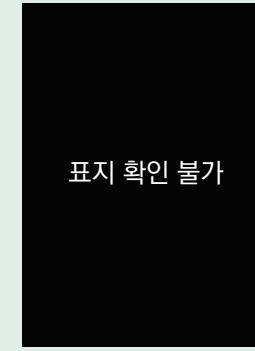
「제5열」



발행일자 : 1979.11.20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78.11.5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82.2.20  
중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88.10.20  
중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92.2.25  
중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2009.2.20  
중판 / 도서출판 남도

「Z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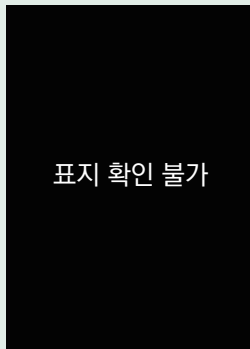
발행일자 : 1980.2.15  
초판 / 명지사



발행일자 : 1984.1.10  
중판 / 명지사



발행일자 : 1990.9.30  
중판 / 명지사



발행일자 : 1998.1.1  
초판 / 초록배



발행일자 : 2011.4.10초  
판 / 도서출판 바른책

### 「회색의 벼랑」



발행일자 : 1980.8.25  
초판 / 문화서적



발행일자 : 1998.7.7  
초판 / 해난터



발행일자 : 2013.9.30  
초판 / 한스미디어

### 「일곱개의 장미송이」



발행일자 : 1980.9.1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80.9.30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92.10.10  
중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2007.11.1  
초판 / 도서출판 남도

### 「서울의 황혼」



발행일자 : 1980.10.15  
초판 / 인문당



발행일자 : 1983.11.15  
중판 / 인문당



발행일자 : 1989.11.5  
초판 / 추리문학사



발행일자 : 2009.8.10  
초판 / 바로찬책

「안개 속에 지다」



발행일자 : 1981.1.24  
초판 / 명지사



발행일자 : 1984.4.25  
중판 / 명지사



발행일자 : 2011.7.15  
초판 / 도서출판 남도

「죽음을 부르는 소녀」



발행일자 : 1981.2.15  
초판 / 여학생사



발행일자 : 1990.12.20  
초판 / 수목출판사



발행일자 : 1995.10.13  
중판 / 수목출판사



발행일자 : 2011.1.20  
초판 / 도서출판 바른책

「나는 살고 싶다」



발행일자 : 1981.3.25  
초판 / 소설문학사



발행일자 : 1988.4.25  
초판 / 여원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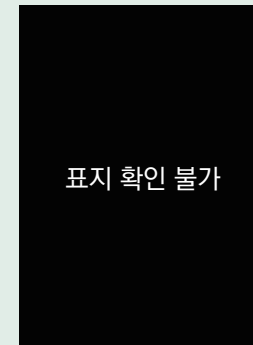


발행일자 : 1996.11.20  
초판 / 추리문학사



발행일자 : 2018.5.15  
초판 / 도서출판 남도

「죽음의 도시」



발행일자 : 1981.8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95.5.20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백색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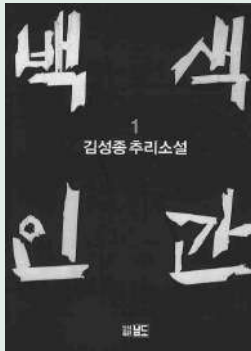
발행일자 : 1982.2.28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91.1.1  
중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91.12.20  
중판 / 도서출판 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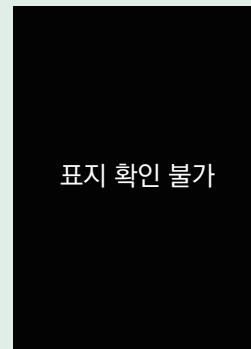


발행일자 : 2008.4.20  
중판 / 도서출판 남도

「제5의 사나이」



발행일자 : 1982.7.20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83.2.10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91.11.1  
중판 / 도서출판 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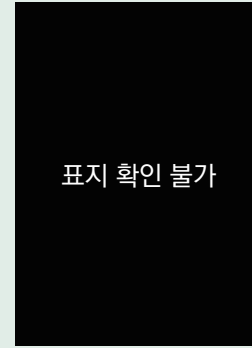


발행일자 : 1993.4.10  
중판 / 도서출판 남도

「미로의 저쪽」



발행일자 : 1983.1.10  
초판 / 명지사



발행일자 : 1992.7.1  
중판 / 명지사



발행일자 : 1998.6.18  
초판 / 초록배매직스



발행일자 : 2010.7.25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반역의 벽」



발행일자 : 1984.1.25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92.2.10  
중판 / 도서출판 남도

「제3의 정사」



발행일자 : 1984.5.15  
초판 / 소설문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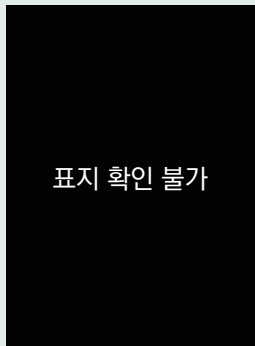


발행일자 : 1988.2.5  
초판 / 여원출판사



발행일자 : 1995.5.15  
초판 / 도서출판 해난터

「아름다운 밀회」



발행일자 : 1984.12.1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92.2.10  
중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1992.10.30  
중판 / 도서출판 남도



발행일자 : 2007.6.25  
중판 / 도서출판 남도

「얼어붙은 시간」



발행일자 : 1984.12.20  
초판 / 소설문학사



발행일자 : 1988.7.20  
초판 / 여원출판사



발행일자 : 1992.1.10  
중판 / 소설문학사



발행일자 : 1997.1.20  
중판 / 소설문학사



발행일자 : 2013.3.25  
초판 / 도서출판 바른책

「피아노 살인」



발행일자 : 1985.4.10      발행일자 : 2004.5.10  
초판 / 명지사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비련의 화인」



발행일자 : 1985.10.25      발행일자 : 1995.7.7      발행일자 : 2010.12.15  
초판 / 여원출판사          초판 / 도서출판 해난터      초판 / 도서출판 바른책

「경부선특급 살인사건」



발행일자 : 1985.12.25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라인X」



발행일자 : 1986.06.30      발행일자 : 1996.10.26  
초판 / 도서출판 남도          중판 / 도서출판 남도

「국제열차 살인사건」



발행일자 : 1987.10.5      발행일자 : 1991.10.25  
초판 / 추리문학사              중판 / 추리문학사

「형사 오병호」



발행일자 : 1988.6.5      발행일자 : 1988.7.5      발행일자 : 1995.5.10  
초판 / 대작사              중판 / 대작사              중판 / 스카이 미디어



발행일자 : 1997.12.01  
초판 /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서울의 만가」



발행일자 : 1988.8.20  
초판 / 여원출판사



발행일자 : 2007.11.20  
초판 / 도서출판 남도

「최후의 밀서」



발행일자 : 1989.2.20  
초판 / 명지사



발행일자 : 2005.1.20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불타는 여인」



발행일자 : 1990.1.10  
초판 / 추리문학사



발행일자 : 2014.2.5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비밀 10+9」



발행일자 : 1990.11.1  
공동집필 / 명지사

「비밀 91+α」



발행일자 : 1991.7.1  
공동집필 / 명지사

「홍콩에서 온 여인」



발행일자 : 1991.12.20  
초판 / 수목출판사



발행일자 : 1997.5.20  
중판 / 수목출판사

「슬픈 살인」



발행일자 : 1992.10.25  
초판 / 추리문학사

「비밀 91+」



발행일자 : 1992.12.01  
공동집필 / 명지사

「비밀의 연인」



발행일자 : 1993.4.26  
초판 / 도서출판 해냄



발행일자 : 2005.3.25  
초판 / 스카이 미디어

「세 얼굴을 가진 사나이」



발행일자 : 1994.3.25  
초판 / 도서출판 해난터



발행일자 : 2005.7.14  
초판 / 스카이 미디어

「버림받은 여자」



발행일자 : 1994.3.30  
초판 / 수목출판사

「여자는 죽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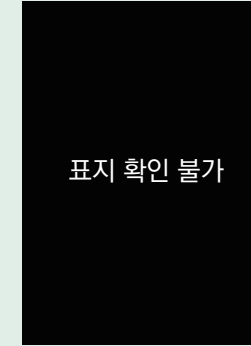
발행일자 : 1995.2.15  
초판 / 도서출판 남도

「끝없는 복수」



발행일자 : 1995.10.15  
초판 / 추리문학사

「돌아온 사자」



발행일자 : 1996.6.20  
초판 / 신원문화사

「아웃사이더」



발행일자 : 1999.6.21  
공동집필 / 신원문화사

「가을의 유서」



발행일자 : 1996.11.17  
초판 / 도서출판 해난터



발행일자 : 2006.6.22  
초판 / 스카이 미디어

「코리언 X파일」



발행일자 : 1997.1.30  
초판 / 추리문학사

「붉은 대지」



발행일자 : 1997.7.8  
초판 / 도서출판 해냄

「한국 국민에게 고함」



발행일자 : 1998.8.25  
초판 / 도서출판 남도

「DJ에게 보내는 편지」



발행일자 : 2000.7.10  
초판 / 추리문학사

「봄은 오지 않을 것이다」



발행일자 : 2006.11.21  
초판 / 도서출판 남도

「안개의 사나이」



발행일자 : 2008.3.25  
초판 / 문학에디션 블

「후쿠오카 살인」



발행일자 : 2011.12.25  
초판 / 문학에디션 블

「늑대소년 다루」



발행일자 : 2013.10.7  
초판 / 청어람주니어

「달맞이 언덕의 안개」



발행일자 : 2015.3.16  
초판 / 새움출판사

「해운대 그 태양과 모래」



발행일자 : 2015.8.21  
초판 / 새움출판사

「1973년 여름, 베를린의 안개」



발행일자 : 2015.9.1  
공동집필 / 청어람

「계엄령의 밤」



발행일자 : 2017.2.6  
중판 / 새움출판사

「오늘의 좋은 소설 2022.봄 신생」



발행일자 : 2022.3.1  
공동집필 / 전망

부록 2.

# 수집 자료 목록

2025년 부산문화예술인 아카이빙 사업을 통해 김성종이 소장한 자료를 수집 및 디지털화를 진행하였다. 디지털화 완료 자료들 중 공개 가능한 자료인 경우 부산문화재단 전자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아래는 수집과 디지털화를 진행하였던 자료의 총 목록이다.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 일자	자료 유형
1	「최후의 증인」 초판본	태종출판사	1977.02.01	도서
2	「여명의 눈동자」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1977.10	도서
3	「여명의 눈동자」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1978.07.15	도서
4	「여명의 눈동자」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1979.01.15	도서
5	「회색의 벼랑」 초판본	문화서적	1980.08.25	도서
6	「여명의 눈동자」 중판본	도서출판 남도	1980.09.10	도서
7	「서울의 황혼」 초판본	인문당	1980.10.15	도서
8	「죽음을 부르는 소녀」 초판본	여학생사	1981.02.15	도서
9	「어느 창녀의 죽음」 4판	문학예술사	1981.04.02	도서
10	「백색인간」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1982.02.28	도서
11	「제5의 사나이」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1982.07.20	도서
12	「최후의 증인」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1982.12.05	도서
13	「미로의 저쪽」 초판본	명지사	1983.01.10	도서
14	「어느 창녀의 죽음」 초판본	문학예술사	1983.07.30	도서
15	「서울의 황혼」 중판본	인문당	1983.11.15	도서
16	「Z의 비밀」 중판본	명지사	1984.01.05	도서
17	「반역의 벽」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1984.01.25	도서
18	「안개속에 지다」 중판본	명지사	1984.04.25	도서
19	「얼어붙은 시간」 초판본	소설문학사	1984.12.20	도서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 일자	자료 유형
20	「피아노 살인」 초판본	명지사	1985.04.10	도서
21	「비련의 화인」 초판본	소설문학사	1985.10.25	도서
22	「경부선특급 살인사건」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1985.12.25	도서
23	「라인X」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1986.06.30	도서
24	「형사 오병호 로마행 JAL 450편기」 초판본	대작사	1988.07.05	도서
25	「제5열」 중판본	도서출판 남도	1988.10.20	도서
26	「최후의 밀서」 초판본	명지사	1989.02.20	도서
27	「서울의 황혼」 초판본	추리문학사	1989.11.05	도서
28	「불타는 여인」 초판본	추리문학사	1990.01.10	도서
29	「제3의 사나이」 초판본	수목출판사	1990.03.26	도서
30	「Z의 비밀」 중판본	명지사	1990.09.30	도서
31	「김교수의 죽음」 중판본	도서출판 남도	1991.01.20	도서
32	「여명의 눈동자」 중판본	도서출판 남도	1991.01.20	도서
33	「국제열차 살인사건」 중판본	추리문학사	1991.10.25	도서
34	「제5의 사나이」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1991.11.10	도서
35	「백색인간」 중판본	도서출판 남도	1991.12.20	도서
36	「홍콩에서 온 여인」 초판본	수목출판사	1991.12.20	도서
37	「얼어붙은 시간」 중판본	추리문학사	1992.01.10	도서
38	「제3의 정사」 23판	여원출판사	1992.01.20	도서
39	「최후의 증인」 중판본	도서출판 남도	1992.02.05	도서
40	「반역의 벽」 중판본	도서출판 남도	1992.02.10	도서
41	「아름다운 밀회」 중판본	도서출판 남도	1992.02.10	도서
42	「얼어붙은 시간」 15판	여원출판사	1992.02.20	도서
43	「일곱개의 장미송이」 중판본	도서출판 남도	1992.02.25	도서
44	「제5열」 중판본	도서출판 남도	1992.02.25	도서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자료유형
45	「나는 살고 싶다」 17판	여원출판사	1992.03.05	도서
46	「백색인간」 중판본	도서출판 남도	1992.10.10	도서
47	「일곱개의 장미송이」 중판본	도서출판 남도	1992.10.10	도서
48	「슬픈살인」 초판본	추리문학사	1992.10.25	도서
49	「비밀의 연인」 초판본	도서출판 해냄	1993.04.26	도서
50	「버림받은 여자」 초판본	수목출판사	1994.03.30	도서
51	「세 얼굴을 가진 사나이」 초판본	도서출판 해난터	1994.04.24	도서
52	「어느 창녀의 죽음」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1994.09.26	도서
53	「여자는 죽어야 한다」 3판	도서출판 남도	1995.02.15	도서
54	「형사 오병호 로마행 JAL 450편기」 중판본	추리문학사	1995.05.10	도서
55	「제3의 정사」 초판본	도서출판 해난터	1995.05.15	도서
56	「죽음의 도시」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1995.05.20	도서
57	「비련의 화인」 초판본	도서출판 해난터	1995.07.07	도서
58	「죽음을 부르는 소녀」 중판본	수목출판사	1995.10.13	도서
59	「끝없는 복수」 초판본	추리문학사	1995.10.15	도서
60	「최후의 증인」 초판본	고려원미디어	1996.08.20	도서
61	「라인X」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1996.10.26	도서
62	「가을의 유서」 초판본	도서출판 해난터	1996.11.17	도서
63	「나는 살고 싶다」 초판본	추리문학사	1996.11.20	도서
64	「얼어붙은 시간」 중판본	추리문학사	1997.01.20	도서
65	「코리언X파일」 초판본	추리문학사	1997.01.30	도서
66	「붉은 대지」 초판본	해냄출판사	1997.07.08	도서
67	「형사 오병호 로마행 JAL 450편기」	흑룡강조선 민족출판사	1997.12.01	도서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자료유형
68	「한국 국민에게 고함」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1998.08.25	도서
69	「DJ에게 보내는 편지」 초판본	추리문학사	2000.07.05	도서
70	「여명의 눈동자」 3판	도서출판 남도	2003.10.20	도서
71	「최후의 증인」 중판본	동서문화사	2003.11.01	도서
72	「피아노 살인」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2004.05.10	도서
73	「고독과 굴욕」 초판본	도서출판 스카이 미디어	2005.02.03	도서
74	「봄은 오지 않을 것이다」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2006.11.21	도서
75	「일곱개의 장미송이」 3판	도서출판 남도	2007.11.01	도서
76	「안개의 사나이」 초판본	임프린트 문학에디션 불	2008.03.25	도서
77	「제5열」 4판	도서출판 남도	2009.02.20	도서
78	「미로의 저쪽」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2010.07.25	도서
79	「죽음을 부르는 소녀」 초판본	도서출판 바른책	2011.01.20	도서
80	「Z의 비밀」 초판본	도서출판 바른책	2011.04.10	도서
81	「후쿠오카 살인」 초판본	문학에디션 불	2011.12.25	도서
82	창작발레 <여명의 눈동자> 포스터	이원국발레단	2012.10.26	도서
83	「얼어붙은 시간」 초판본	남도출판사	2013.02.25	도서
84	「늑대소년 다루」 1판	청어람주니어	2013.10.07	도서
85	「불타는 여인」 초판본	도서출판 남도	2014.02.05	도서
86	「최후의 증인」 초판본	(주)새움출판사	2015.06.25	도서
87	「해운대 그 태양과 모래」 초판본	(주)새움출판사	2015.08.21	도서
88	「부랑의 강」 3판	도서출판 남도	2015.11.01	도서
89	「계엄령의 밤」 초판본	(주)새움출판사	2017.02.17	도서
90	「콜걸」 원고	김성종	1965	원고
91	「사육」 원고	김성종	1966	원고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자료유형
92	「적자생존」 원고	김성종	1966	원고
93	「학보병」 원고	김성종	1966.02.03	원고
94	「암표장사」 원고	김성종	1966.03.18	원고
95	단편소설 「달밤」 원고	김성종	1966.04.29	원고
96	「투사」 원고	김성종	1966.10	원고
97	단편소설 「투사」 원고	김성종	1966.10.06	원고
98	장편소설 「압사」 원고	김성종	1967	원고
99	단편소설 「백장」 원고	김성종	1967.02.28	원고
100	「돼지웃음」 원고	김성종	1967.05.03	원고
101	「슬픈살인」 원고	김성종	1998.08.04	원고
102	「후쿠오카 살인」 노트 초고	김성종	2004.06.21	원고
103	「1950년대 초기의 인형극」 원고	김성종	미상	원고
104	단편소설 「낮잠」	김성종	미상	원고
105	단편소설 「일정표」 원고	김성종	미상	원고
106	「최후의 증인」 초고1	김성종	미상	원고
107	「최후의 증인」 초고2	김성종	미상	원고
108	「미스터리 뮤지컬 : "피아노 살인" 원작: 김성종」	미상	미상	인쇄물
109	경부선 하권 : 도난차량 원고	김성종	미상	인쇄물
110	경부선 하권 : 두 형사 원고	김성종	미상	인쇄물
111	경부선 하권 : 살인자 원고	김성종	미상	인쇄물
112	경부선 하권 : 윤후안 사라지다 원고	김성종	미상	인쇄물
113	경부선 하권 : 제주도 원고	김성종	미상	인쇄물
114	경부선 하권 : 추격 원고	김성종	미상	인쇄물
115	경부선 하권 : 추적의 여로 원고	김성종	미상	인쇄물
116	경부선 하권 : 폭풍전야 원고	김성종	미상	인쇄물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자료유형
117	김성종 추리문학전집18 경부선특급 살인사건 중권 원고	김성종	미상	인쇄물
118	남편의 원고 돌아오다 : 경부선 하권 끝 원고	김성종	미상	인쇄물
119	붉은 장관 원고	김성종	미상	인쇄물
120	「새해부터 새소설 연재 김성종작 '안개 속에 지다」	부산일보	1980	신문
121	「신년호부터 두 연재소설이 바뀝니다 : 인기추리작가 김성종씨의 야심에 찬 미스터리소설 제2탄」	주간경향	1980	신문
122	「김성종 장편추리소설 '안개 속에 지다」	일간스포츠	1981.02.25	신문
123	「신작 '여명의 눈동자' 주역 연극배우 이경희로 교체」	미상	1981.03.24	신문
124	「영화계 탈북황 몸부림 : 15억들일 '여명의 눈동자」	중앙일보	1981.03.26	신문
125	「나는 살고싶다」	일간스포츠	1981.05.03	신문
126	「인간미 없는 기계같은 인물이지만 빈틈없는 쾌남의 매력」	일간스포츠	1981.07.27	신문
127	「40대 주인공은 병신의 명수」	일간스포츠	1981.08.30	신문
128	「한국에 추리소설 붐 : "한국독서계에 이번...양성불가능정설 깨 학생과 셜리맨총서 압도적 지지 여유 뒤에 숨은 불만 돌파구일지도"」	한국일보	1981.10.09	신문
129	「새 추리소설 연재 : 김성종작 미로의 저쪽」	미상	1982.01	신문
130	「추리문학은 자유를 먹고 산다」	부산일보	1982.02.01	신문
131	「새해부터 새연재 국내 첫 본격 산업 스파이 소설 : 반역의 벽」	일간스포츠	1982.12.20	신문
132	「화제의 선풍일으킬 '반역의 벽」	일간스포츠	1982.12.31	신문
133	「여름을 잊게하는 한권의 책 7 : 모사드가 벌이는 15년 추적극」	미상	1983.07.27	신문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 일자	자료 유형
134	「근친상간의 과오를 자살로 씻는... : 김성종작 '어느 창녀의 죽음'의 춘이」	한국경제신문	1983.11.18	신문
135	「에로틱한 소재·부드러운 문장 : 새 연재소설...작가 김성종씨에 듣는다」	일간스포츠	1983.12.26	신문
136	「"바다 좋아" 부산 정착 : 추리소설 작가 김성종씨」	주간경향	1984.09.02	신문
137	「추리소설 세계화 꿈꾸는 야심작 : 새 해 연재 '국제열차 살인사건' 김성종의 작품세계」	일간스포츠	1985.12.28	신문
138	「국내신문사상 최초의 '영상추리소설' : 국제열차살인사건」	일간스포츠	1985.12.29	신문
139	「집합! '국제열차살인사건' 작가·스텝·캐스트」	일간스포츠	1986.01.01	신문
140	「여름이 제철인 추리소설」	부산일보	1986.07.01	신문
141	「'상업문학' 판칠 때 순수 고수」	부산일보	1986.09.10	신문
142	「한국 추리문학 대상 김성종씨 수상 결정」	일간스포츠	1986.11.13	신문
143	「현재훈, 김성종 뽑고나서」	스포츠서울	1987.01	신문
144	「국내 추리문학 "기지개" : 작품수준 향상 독자 큰 호응」	경향신문	1987.01.11	신문
145	「서울에서 제일 쓸쓸한 사나이 : 형사 오병호' 시리즈 제1탄」	주간중앙	1987.03.22	신문
146	「TV평 MBC '최후의 증인' - 제모습 찾은 추리극의 연출해석」	스포츠서울	1987.06.21	신문
147	「막 내린 MBC '최후의증인' 본격 추리극 새 이정표 제시」	한국일보	1987.06.30	신문
148	「추리극 새 이정표 제시 '최후의 증인」	동아일보	1987.07.07	신문
149	「"세계일주하고 돌아온 기분" : '국제 열차 살인사건' 연재 마친 김성종씨」	일간스포츠	1987.07.31	신문
150	「추리소설 뿌리내린다 : 신인 등용문 넓어지고 전문작가 늘어」	조선일보	1987.09.15	신문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 일자	자료 유형
151	「최신장편 추리소설 국제열차살인사건 : 김성종 제1기를 결산하는 최신역작!」	미상	1987.10	신문
152	「픽션 제3의 사나이 : 추리작가 김성종이 추리한 KAL 미스터리 <상>」	일간스포츠	1987.12.07	신문
153	「픽션 제3의 사나이 : 추리작가 김성종이 추리한 KAL 미스터리 <하>」	일간스포츠	1987.12.09	신문
154	「해변에서 계곡에서 '문학과 인생'을 생각한다 : 여름학교」	스포츠서울	1988	신문
155	「6시간짜리 대작 영화 만든다 : '여명의 눈동자' '아로운전」	한국일보	1988.02.12	신문
156	「"독자 상상력 만족시키겠다" : 새연재 추리소설 '불타는 여인'의 작가 김성종씨」	스포츠서울	1988.07.01	신문
157	「"부산·경상인의 자존심이어야" : 추리문단의 중진 김성종씨」	향도일보	1988.10.11	신문
158	「연재소설 집필진이 '향도'에 거는 기대 : 추리문단의 중진 김성종씨」	향도일보	1988.10.11	신문
159	「한국추리소설 중국서 큰 인기」	스포츠서울	1988.11.10	신문
160	「'어느 암살자의 고백' 지난 줄거리 : 김성종」	향도일보	1989	신문
161	「향도부산을 배경으로 펼쳐질 '들리지 않는 외침과 보이지 않는 몸부림' 이야기 : <어느 암살자의 고백> <도시에 갇힌 새> 본지 연재소설 두 작가·화가 는 말한다」	향도일보	1989.01.25	신문
162	「신문 늘어나자 연재소설도 "부쩍" : 이병주 김성종 김왕석씨 등은 2~3편 동시 집필 추리 역사 수렵물이 절반, 월 1편 500만원 받기도」	스포츠서울	1989.03.09	신문
163	「"추리소설 저급하다"는 편견 : 엄연한 문학장르...무한한 가능성 지녀 '여명의 눈동자' 등 장편 30여편 집필 문단의 중앙 집중 싫어 80년 부산정착」	국제신문	1989.03.11	신문
164	「윤리시비없고극적재미 선사 : MBC 미니시리즈 '제5열」	미상	1989.08.09	신문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 일자	자료 유형
165	「나의 집필 뒤안길 : 김성종씨의 '불타는 여인」	국제신문	1990.02.14	신문
166	「1회 1억짜리 드라마 만든다 : '여명의 눈동자」	조선일보	1990.04.10	신문
167	「김성종 추리소설 '나는 살고 싶다' 영화로 : 베스트셀러 원작 흥미에 영상 미학 가미」	민주신문	1990.05.04	신문
168	「추리소설계의 개척자 김성종」	조대신문	1990.05.30	신문
169	「필리핀 '해외로케' : MTV '여명의 눈동자」	스포츠조선	1990.06.03	신문
170	「전쟁드라마 진수 보여준다 : <여명의 눈동자>」	일간스포츠	1990.07.05	신문
171	「추리소설에 삼복더위 잇는다 : 국내 출판사-작가 앞다퉀 출판 경쟁 이상 우 '악녀시대' 김성종 '5시간30분' 등 서점가 강타 외국선 '대단원의 반전'에 인기 절정」	스포츠조선	1990.07.18	신문
172	「"상징적 명탐정 남기겠다" : 50여편 양산 '한국의 코난도일' "추리 소설은 김맥.....독자있는한 계속쓸것"」	조선일보	1990.07.20	신문
173	「폭염몰아내는 '추리' 열기: 이열치열 예술인 8 작가 김성종씨」	국제신문	1990.07.26	신문
174	「한일 추리작가 교류협약」	미상	1990.08.31	신문
175	「공산권국가서 현지로케 : '청춘극장' '여명의 눈동자' 등 소·중으로 "현장감 살리고 질 향상 계기" 기대모아」	경향신문	1990.09.28	신문
176	「추리소설 해외진출 활발: 김성종 <정몽> 등...연변교포·중국인에까지 인기」	일간스포츠	1990.11.24	신문
177	「새해부터 김성종 추리소설 연재 : 권용훈 화백 삽화맡아 '홍콩에서 온 여인' 권력 음모 그려」	국제신문	1990.12.15	신문
178	「새 연재소설 김성종작 '홍콩에서...' : 정치권 '술수·음모의 배일' 벗긴다」	국제신문	1990.12.28	신문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 일자	자료 유형
179	「추리소설 1인자 김성종 야심작 '슬픈 살인' : 3년 반 만에 본지 독자와 다시 만난다」	일간스포츠	1990.12.30	신문
180	「문장력 치밀한 사건전개 등 돋보여」	스포츠서울	1991.01.04	신문
181	「<여명의 눈동자> 여옥 이미지에 맞게 다이어트·조깅 등 7개월 각고 감량」	일간스포츠	1991.01.07	신문
182	「대형극 양TV 맞대결 : '여명의 눈동자'는 36부작」	경향신문	1991.01.12	신문
183	「'통한의 현대사' 쫓아 붓길 1만2천매 : 내가 사랑하는 작품 김성종씨의 <여명의 눈동자>」	일간스포츠	1991.04.13	신문
184	「여명의 눈동자 중국 현지로케가 한편의 드라마 : 중국스태프 78명·배우 37명·엑스트라 연5천명동원」	일간스포츠	1991.04.29	신문
185	「양TV 대하극 제작 경쟁 : 제작비 수십억 "물량공세"」	조선일보	1991.05.24	신문
186	「이제부터 본격 '추리여행' : 연재소설 '슬픈 살인」	일간스포츠	1991.07.07	신문
187	「추리소설 영화 '제5의 사나이' 23일 개봉 : 여인...액션...사랑...그리고...」	스포츠조선	1991.11.19	신문
188	「애독자 무료초대 : <제5의 사나이>」	일간스포츠	1991.11.25	신문
189	「세상에서 제일 쓸쓸한 사나이 : 김성종씨 야심작...삽화 박남씨」	한국일보	1991.12.13	신문
190	「<여명의...>작가 김성종씨 MBC에 불만 표시 : 사전 동의 없이 원작 훼손 '무시한 처사다」	미상	1992.01.08	신문
191	「부산작가들 작품화 활발」	한국일보	1992.02.22	신문
192	「영상주제음악 음반시장 강타 : '여명의...' 앨범 40만장 돌파」	한국일보	1992.02.24	신문
193	「'여명의 눈동자' 평가 열띤 토론」	조선일보	1992.02.27	신문
194	「추리문학도서관 28일 개관 : 국내 최초 열람실·공연장 등 갖춰」	국제신문	1992.03.20	신문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 일자	자료 유형
195	「부산에 '김성종 추리문학관' 건립」	동아일보	1992.04.01	신문
196	「고독한 자유주의자 : 추리작가 김성종」	스포츠조선	1992.04.03	신문
197	「추리소설 각광 국내 인기작가들은 누구 : 김성종·이상우·노원 고정독자 "탄탄"」	경향신문	1992.08.01	신문
198	「김성종추리소설<국제열차 살인사건> : TV드라마 만든다」	일간스포츠	1992.08.21	신문
199	「사건과 인간 내면 동시 추적 : 거지·외판원·사장 세살사는 사기꾼통해 진실·위선 함께지닌 인간형제시」	한국일보	1992.12.30	신문
200	「'로맨틱 미스터리 진수 보여주겠다' : 버림받은 여자 새 추리소설 오늘부터 본지 연재 작가 김성종씨」	일간스포츠	1993.02.01	신문
201	「국내 추리소설 첫 뮤지컬공연 '불만' : 젊은 극단 '콘브리오' 의욕적 무대에 박수를」	미상	1993.04.14	신문
202	「국제마약조직 암투 그려 : 김성종소설 '국제열차...' 극화 16mm영화필름 사용 유럽로케」	동아일보	1993.10.19	신문
203	「MBC 프로 올해 300만달러어치 수출 '여명의 눈동자' '질투' 등 중국 첫 진출」	미상	1993.11.17	신문
204	「작가·독자·출판 3요소 성숙: 국내 추리소설 뿌리내려」	영남일보	1993.12.06	신문
205	「추리소설 "가장 가능성 있는 장르" : 69년 문단 데뷔 후 30여권 집필」	캠퍼스 라이프	1993.12.16	신문
206	「추리소설가 김성종 새소설 '발작시대' 12일부터 연재 : 작가 데뷔 20년 만의 야심작」	일간스포츠	1994.02.08	신문
207	「교수들이 즐겨 찾는 곳 : 해운대 추리문학관내 '셜록 홈즈의 집' : 탁 트인 바다 벗하며 해풍에 잡념 잊어」	교수신문	1994.05.16	신문
208	「'여명의 눈동자'의 여옥에게/김성종 : 일 '위안부 망언' 아직도 계속 당신 죽음 보상할 길 없구료」	동아일보	1996.06.11	신문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 일자	자료 유형
209	「신세대 작가 등용문 자리 굳혔다」	미상	1997.01.03	신문
210	「"완벽한 플롯·절묘한 트릭 탁월"」	일간스포츠	1997.01.10	신문
211	「'한국 국민에게 고함' : 김성종 새추리소설」	일간스포츠	1997.01.10	신문
212	「탄탄한 구성·날카로운 필치...추리소설의 진수 : '고발문학 새지평 연다'」	미상	1997.01.11	신문
213	「일간스포츠 제정 '98 신춘대중문화상 : 응모 열기 후끈...빼어난 작품 많았다」	일간스포츠	1998.01.03	신문
214	「공상과학 이색 소재...스릴 넘치는 수작」	일간스포츠	1998.01.07	신문
215	「부산소설가협회 신임회장」	미상	1998.03	신문
216	「김성종씨 신임회장 추대 : 부산소설가협」	부산매일	1998.03.24	신문
217	「부산소설가협회장 김성종씨」	국제신문	1998.03.24	신문
218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자" : 부산 민족문학작가회의·소설가협 제1회 문학기행」	부산일보	1998.06.02	신문
219	「이토록 마음 아린 역사를 보았는가 : 공연 리뷰 여명의 눈동자」	조선일보	2019.03.13	신문
220	「"새해를 새롭게"...1월 5일자부터 3대연재 : '아름다운 밀회'」	일간스포츠	미상	신문
221	「국내 첫 '추리문학도서관' 선다 : 추리작가 김성종씨, 부산해운대에 '추리문학관' 설립」	미상	미상	신문
222	「김성종 추리소설 연재예고」	미상	미상	신문
223	「김성종과 다시 만난다 : 새 장편 추리소설 '슬픈살인'」	미상	미상	신문
224	「대하소설 '여명의 눈동자' 민족의 통한 10권에 묶어」	미상	미상	신문
225	「미니시리즈 '여명의 눈동자' "주목하라"」	일간스포츠	미상	신문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자료유형
226	「베스트셀러의 TV드라마화 : <여명의 눈동자> <그대 아직도...> <정춘극장> 등 양TV서 5편 "많은 독자 시청자로 모을 수 있다"... 직접 영상화보다 '재창조'해야」	미상	미상	신문
227	「새 본격추리소설 7면에 연재 : 제5의 사나이」	일간스포츠	미상	신문
228	「새소재·새스타일의 이색 연재소설 시간여행 : 제3의 사나이」	중앙경제신문	미상	신문
229	「새해부터 새 연재소설 : '아름다운 밀회」	일간스포츠	미상	신문
230	「'여명의 눈동자' MTV 동남아 촬영돌입」	미상	미상	신문
231	「여명의 눈동자」	일간스포츠	미상	신문
232	「일간스포츠 인기연재 : 슬픈 살인」	일간스포츠	미상	신문
233	「정규용, 김성종 뽑고나서 : 치밀한 구성, 문장력 뛰어나」	미상	미상	신문
234	「'추리문학 도서관' 부산에 개관 : 작가 김성종씨 사재 20억원 들여」	미상	미상	신문
235	「한국추리문학대상 받은 김성종씨」	일간스포츠	미상	신문
236	「CAPI 만난다/이 남성과 만나고 싶다 : 김성종·나향순」	간호	1986.09	잡지
237	「현대 문명이 낳은 기형아 : -제5열의 '다비드 킴'-」	대우사보	1987	잡지
238	「안녕하십니까!」	미상	1987.01	잡지
239	「작가 김성종의 부산 쇼핑여행」	레이디경향	1987.06.08	잡지
240	「김성종 선생님이 10월부터 연재를 시작합니다 '파도 속에 지다' : 예고·본격 청소년 추리소설 연재」	여고시대	1987.09	잡지
241	「이 남자를 만나고 싶다 : '제5열'의 작가 김성종 미스터리」	가정조선	1989.09	잡지
242	「나 그걸 줄 알았어!」	미상	미상	잡지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자료유형
243	「도레미파솔라시도」	미상	미상	잡지
244	「베스트셀러 작가와의 만남 : 김성종 "자리산서 태어나, 부산서 작품」	미상	미상	잡지
245	「나는 살고 싶다」	동아일보	1981.04.10	광고지
246	「피의 오르가슴이 당신을 전율케 한대!! : 나는 살고 싶다」	중앙일보	1981.05.03	광고지
247	「김성종 장편 추리소설(상하) '반역의 벽」	조선일보	1983.01.13	광고지
248	「비정파작가 김성종의 열두 번째 장편 추리소설! '미로의 저쪽」	일간스포츠	1983.01.24	광고지
249	「김성종 장편 추리소설 '제5의 사나이」	일간스포츠	1983.03.02	광고지
250	「반역의 벽 김성종 장편 추리소설(상하)」	미상	1983.12.21	광고지
251	「김성종 정선 최신 세계추리소설·5 '붉은 광장」	일간스포츠	1984.03.19	광고지
252	「한국추리문학의 대부 김성종의 신작 장편 '제3의 정사」	중앙일보	1984.05.23	광고지
253	「한국추리문학의 대부 김성종의 신작 장편 '제3의 정사」	미상	1984.06	광고지
254	「김성종 정선 최신 세계추리소설·제8탄 '망명시인 빛속에 사라지다」	중앙일보	1984.08.23	광고지
255	「불모의 한국 추리 문학계에 새바람을 일으킬 추리문학 전문지! '현대추리' 창간호」	중앙일보	1984.10.19	광고지
256	「김성종 장편 추리소설 '제5열」	스포츠서울	1985.12.22	광고지
257	「경부선특급살인사건 상」	스포츠서울	1985.12.23	광고지
258	「제2회 한국추리문학대상 수상작가 김·성·종 : 서울의 만가」	조선일보	1988.09.16	광고지
259	「김성종 미스터리 : '제5열'의 작가 베일 속의 일상생활」	조선일보	1989.09.07	광고지
260	「"큰 작가의 큰 작품" : 여명의 눈동자」	경향신문	1991.11.13	광고지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자료유형
261	「"지성을 위한 가을……추리문학사에 있습니다." : 부산 해운대를 무대로 펼쳐지는 김성종의 새롭고 야심만만한 전4권의 장편 대하추리소설!」	일요신문	1992.12.13	광고지
262	「봉생문화상 수상자 선정」	조선일보	1993.11.21	광고지
263	「김성종의 본격 성인물 "플레이보이 일기"」	미상	1994.05	광고지
264	「김성종 정선 최신 세계 추리소설시리즈 제7탄! : 호반의 비밀」	미상	미상	광고지
265	「김성종 정선 최신 세계 추리소설시리즈2 '불타는 사나이」	미상	미상	광고지
266	「김성종 추리문학의 깊이를 증언해주는 최신 장편 추리소설 : '경부선 특급 살인사건' 상」	미상	미상	광고지
267	「비정파작가 김성종의 열두 번째 장편 추리소설! '미로의 저쪽」	미상	미상	광고지
268	「우리시대가 불멸의 대작! 여명의 눈동자」	남도출판	미상	광고지
269	마라톤 88TR 타자기	동아정공	1980년대	박물
270	한국일보 감사패	한국일보 대표이사 장재구	1984.09.26	박물
271	제2회 한국추리문학대상 상패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장 이가형	1986.11.15	박물
272	문화부장관 감사패	문화부장관 이수정	1992.04.14	박물
273	문학관 등록증	부산광역시장	2019.11.04	문서
274	「현대문학」 1973년 6월호(제222호)	현대문학	1973.06	연속간행물
275	「계간 추리문학」 1988 겨울호 NO.1	추리문학사	1988	연속간행물
276	「계간 추리문학」 1989 가을호 NO.4	추리문학사	1989	연속간행물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자료유형
277	「계간 추리문학」 1989 겨울호 NO.5	추리문학사	1989	연속간행물
278	「계간 추리문학」 1989 봄호 NO.2	추리문학사	1989	연속간행물
279	「계간 추리문학」 1989 여름호 NO.3	추리문학사	1989	연속간행물
280	「계간 추리문학」 1990 가을호 NO.7	추리문학사	1990	연속간행물
281	「계간 추리문학」 1990 겨울호 NO.8 (창간 2주년 기념 특별호)	추리문학사	1990	연속간행물
282	「계간 추리문학」 1990 봄여름호 NO.6	추리문학사	1990	연속간행물
283	「계간 추리문학」 1991 가을호 NO.10	추리문학사	1991	연속간행물
284	「계간 추리문학」 1991 봄여름호 NO.9	추리문학사	1991	연속간행물
285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식	김성종	1969	인화사진
286	한국일보 제20주년기념 장편소설 공모 당선 시상식	김성종	1974	인화사진
287	김성종 결혼식 사진	김성종	1974.12	인화사진
288	소설 연재 사진	김성종	1975.02	인화사진
289	타자기	김성종	1980	인화사진
290	81 여름철 시인과 독자교실	목마시문학동인회	1981	인화사진
291	부산펜산악회 모임	김성종	1983.02	인화사진
292	제1회 추리소설문학상	한국추리작가협회	1984	인화사진
293	삼익비치 베란다에서 김성종 사진	김성종	1984.04	인화사진

연번	자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자료유형
294	김성종 지리산 등반사진	김성종	1985.07.25	인화 사진
295	김성종 앨범	김성종	미상	인화 사진
296	김성종 여행사진(독일)	김성종	미상	인화 사진
297	김성종 여행사진(영국)	김성종	미상	인화 사진
298	김성종 여행사진(일본)	김성종	미상	인화 사진
299	김성종 여행사진(프랑스 파리)	김성종	미상	인화 사진
300	김성종 지리산 등반사진	김성종	미상	인화 사진
301	김성종 지리산 등반사진	김성종	미상	인화 사진
302	김성종 집필사진	김성종	미상	인화 사진
303	김성종과 셋째 아들 사진	김성종	미상	인화 사진
304	해운대 바닷가에서 김성종 가족사진	김성종	미상	인화 사진
305	해운대 바닷가에서 김성종과 셋째 아들	김성종	미상	인화 사진
306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포스터	수키컴퍼니	2020.02.27	전시 인쇄물

## - 참고 문헌 -

- 송명희(2002). 「김성종의 추리소설과 섹슈얼리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
- 송명희(2007). 「김성종의 초기소설연구\* -중·단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 안혜연(2022), 1970~80년대 한국 추리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휴(1999). 『김성종읽기』, 도서출판 남도
- 1982.8.27, 創立기념 등산 펜산악회,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82082700003000806>
- 최학림, 2022.7.3, 2년 만의 '여름소설학교' 16~17일 부산소설가협회,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03000003>
- 1986.10.16, PEN 집행부 개편,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861016000309>
- 서동오, 2006.8.1, `달맞이언덕축제` 4~6일 추리문학관 등서 다채로운 문화행사, 국제신문,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19861016000309>
- 강승아, 2015.7.21, [부산소설가협회 지리산 자락서 여름소설학교] 소설은 자유인가?,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50722000001>
- 최학림, 2022.12.08, 한국 첫 추리 문학관 '창조적 파괴' 30년을 돌아보다,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2081710536451>
- 이상현, 2012.3.31, 추리문학관 20년 : 나의 인생 나의 문학 김성종,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20331000015>

발행인 : 오재환  
책임기획 : 박소윤  
행정 : 김 정

수행기관 : (주)쇼우테크  
사업관리자 : 권민선  
품질관리 : 차광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발행일 : 2025.12.31.  
발행처 : (재)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

부산문화재단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T.051-745-7205~7  
F.744-7708  
<http://www.bscf.or.kr>

위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를  
준수할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부산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